

昭和七年六月一日發行(每月一回一日發行)  
昭和七年五月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 朝鮮語學會雜誌

# 한글

進呈

第一卷 第二號

## — 버 리 —

■ 말소리는 어디서 어떻게 나는가 .....	李 克 魯	(43)
■ 地名 研究의 必要 .....	李 熙 昇	(46)
■ 北關 사투리 몇 .....	李 常 春	(49)
■ 잘못 쓰기 쉬운 文法 .....	李 鉞	(51)
■ 조선사람은 조선말을 얼마나 아는가 .....	崔 鉉 培	(54)
■ 言語와 人間 .....	柳 根 錫	(57)
■ 한글 教授에 對하여 .....	李 浩 盛	(60)
■ 피히테의 言語觀 (下) .....	金 善 琪	(64)
■ 日本의 常用漢字 .....		(67)
○ 質疑 解答 .....		(71)
○ 本會 記事 .....		(74)
○ 남은 말습 .....		(74)
■ 綴字法에 對한 本誌의 態度 .....		(42)

【紙 十五錢】

## 綴字法에 對한 本誌의 態度

朝鮮語 綴字法의 完全無缺한 統一案이 確立한 뒤에, 本誌가 나오는 것이, 그 바른 順序일 것이다. 그러나, 綴字法 統一이란 것은 다른 나라 말의 例를 볼지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時間으로 數百年, 사람으로 無數한 사람이, 아무 整然한 法則이 없이 써오든 우리 말의 綴字法을 統一함에는, 여러 가지 複雜하고 錯亂한 問題가 많다. 그리하여, 本會로서는 年來로 그 統一案 作成에 애쓰는 中에 잊지마는, 그 案이 實際로 成立하려면 아직도 얼마나한 時日을 要할 것이다. 그런데, 本誌에 關한 世間의 要求는 緊切함을 져버릴 수가 없다. 그리하여, 오늘날 標準으로의 形式을 가지고, 이 『한글』이 出現한 것이다.

그러므로, 本會의 決議에 좇아, 編輯의 全責任을 지신 李允宰氏가 위선 本誌의 한글 綴字를 校正하기로 하며, 學術에 關한 各人의 主張하는 部分만은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本誌를 通하여 綴字法에 關한 研究가 많이 發表되며 討論되어서, 하로라도 속히 統一案이 成立되기를 期待하자 함이 本會의 決議였다. 그러한즉, 天下 同志와 讀者 여러 분은 이 앞으로, 研究 發表, 意見 討究等에 많이 協同하여, 이 至重한 事業의 完成에 힘쓰기 잇기를 바란다.

# 말소리는 어디서 어떻게 나는가

李 克 魯

말소리의 生理的 關係와 物理的 關係와  
를 研究하는 學問이 곧 聲音學이다。 이  
自然科學을 오늘날에 와서는, 語學, 樂學,  
醫學에서 모도 많이 應用하고 있다。 語學  
을 研究하려면, 먼저 聲音學의 基礎를 가  
지지 않고는, 그 目的을 完全히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語音 研究의 基  
礎가 되는 生理的 關係만을 말하려 한다。

- 一. 숨쉬는 자리
- 二. 소리 내는 자리와 고루는 자리
  - 1. 울대머리(喉頭)
  - 2. 입
  - 3. 코

## 一. 숨쉬는 자리(呼吸器官)

소리가 내려면, 먼저 物體를 振動시키  
는 힘이 있어야 된다。 사람의 말소리를  
내는 힘은, 곧 우리의 呼吸(呼氣)이다。

가슴과 배의 사이를 가루 막은 橫隔膜  
은 가슴 쪽으로 볼록하게 내민, 뒤길 힘  
(彈力)이 있는 筋肉板이다。 이 가슴 속의  
큰 部分은 숨쉬는 器官인 肺(肺)가 차  
지하고 있다。 左右 肺의 사이에는, 우로  
부터 氣管(氣管)이 내려 들어 와서, 처음  
에는 左右 두 氣管枝로 갈라지고, 그 다  
음에 다시 左右 두 가지로 갈라져 肺로  
들어가서, 많은 잔 가지가 생겼다。 이 잔  
가지 끝에는 氣胞가 달려있는데, 그 氣胞  
안에서는 새로 들어온 空氣의 酸素와 피

에서 몰려어 나갈 氣가 서로 비꾸어지  
게 된다。 이 뒤길 힘이 있는 纖維는, 肺  
로 하여금 無數한 孔(孔)이 되게 한다。 이 孔  
무에는 가슴이 볼러짐을 따라 空氣가 찾  
다가, 우물어짐을 따라, 다시 밀려어 나가  
게 되느니, 이것이 곧 呼吸이다。

예사 숨쉬 때에는, 들숨(吸氣)에 배가  
볼러지는데, 그 때에 한쪽으로는 橫隔膜  
을 눌러 平(平)하게 하고, 또 한쪽으로는  
갈비대를 벌린다。 그래서, 가슴 안이 키  
지고 空氣가 氣管과 肺로 빨리어 들어가  
서, 빈 가슴 안이 온전히 찬다。 呼氣(呼  
氣)에는 橫隔膜과 갈비대가 本來 狀態로  
돌아간다。 숨을 들여쉬는 時間과 내쉬  
는 時間은 거의 같은데, 다 코구멍으로  
된다。

말할 때에는 숨쉬는 것이 좀 달리 된  
다。 숨쉬려고 筋肉을 特別히 쓰지 아니하  
고, 그 呼吸을 應用하여 말소리를 내게  
된다。 筋肉作用으로써, 숨을 빨리 들여  
쉬고, 또 숨을 내쉬기 前에, 잠간 쉬는 동  
안이, 예사 때보다 좀 길어진다。 要求에  
따라, 呼吸의 強度를 調節한다。 聲帶 다  
음에 모든 發音을 맡은 입은 또 呼吸의  
길이 된다。

## 二. 소리 내는 자리와 고루는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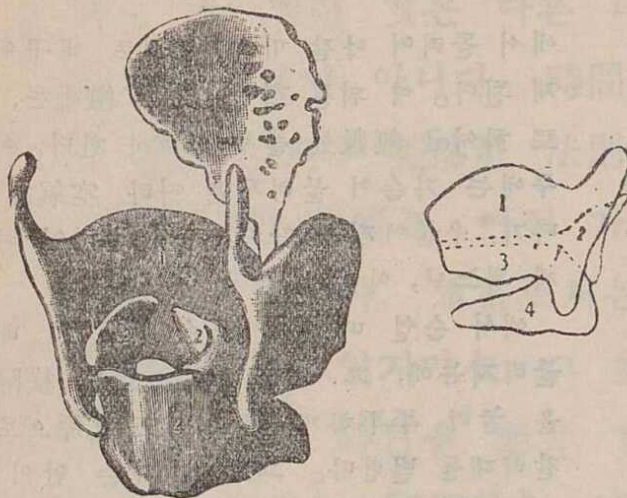
### 1. 울대머리(喉頭)

부하(肺)에서 나오는 空氣의 힘으로 소



리를 만드는 자리는, 곧 울대(氣管) 끝에 붙은 울대머리(喉頭)다。 이 喉 1  
 방패처럼 된 방패여린뼈(甲狀軟骨)와, 가 2  
 락처럼 된 가락여린뼈(環狀軟骨)와, 3  
 목청을 고루는 대에 쓰이는 고름여린뼈 4  
 (調整軟骨) 두 날으로 이루었다。 甲狀軟

(첫그림) 울대머리여린뼈



1, 방패여린뼈(甲狀軟骨) 2, 고름여린뼈(調整軟骨)  
 3, 목청(聲帶) 4, 가락여린뼈(環狀軟骨)  
 5, 울대다개(會厭)

骨과 調整軟骨의 사이에, 두 질긴띠(勒帶)를 목청(聲帶)이라 하고, 두 聲帶 틈을 소리문(聲門)이라 한다。 聲帶는 調整軟骨의 伸縮함을 따라, 되어졌다가 늦어졌다가 하고, 또 聲門은 聲帶의 늦고 됨을 따라, 열리고 닫힌다。 喉頭의 꼭대기에는 울대다개(會厭)가 있어, 무엇을 먹을 때에 울대머리를 내려 닫아서, 食物이 喉頭를 넘어 밥길(食道)로 들어가게 되고, 또 숨 쉴 때에는 곧 일어 열리어서, 氣流가 제 절로 숨구멍과 코구멍으로 나들게 되고, 말할 때에는 그것이 열리어서 날숨이 입으로나 혹은 코구멍으로 나온다。

우리가 예사로 숨 쉴 때에는, 聲門이 너르게 열린 때문에, 氣流가 아무 것침없이 그 틈으로 나들므로, 아무 振動이 일어나지 못하되, 한번 목청이 경겨서 聲門이

6818066 재 좁아져서 날숨의 기운이 聲帶 1  
 시기면 樂音이 나느니, 이것을 聲 2  
 音學에서 聲(Voice)이라고 한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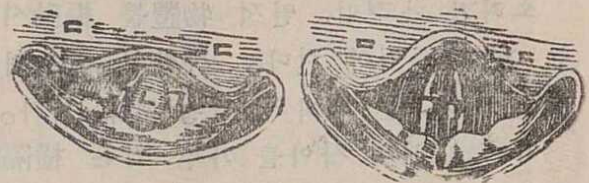
말의 소리에는 聲帶作用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다。 聲帶作用은 세 가지가 있느니, 母音과 有聲子音의 關係로 가장 많은 作用은 振動이요, 그 다음에는, 聲帶를 좁히는 대에서 생기는 磨擦과 또 닫는 대에서 생기는 破裂이다。 그러나, 또 입이나 코의 作用으로 나는 許多한 소리에는, 예사 숨 쉴 때와 같고, 아무 단 짓은 없다。

聲門은 힘줄소리문(筋肉聲門)과 여린 뼈소리문(軟骨聲門)의 두 가지가 있다。 앞에 짓은 筋肉으로 된 목청사이 틈이요, 뒤에 짓은 두 調整軟骨의 사이에 생긴 틈이다。

소근거리는 소리(耳語)는 高低의 變動이 없는 噪音이다。 이것은 매우 좁힌 筋肉聲門으로나, 혹은 筋肉聲門은 꼭 닫고, 軟骨聲門으로 내미는 氣流에서 생기는 것이다。

(둘째그림)

숨 쉴 때의 목청 소리낼 때의 목청  
 앞 앞



뒤 뒤

가 목청 나 소리문 다 혀

사람이 목청으로 낼 수가 있는 高低의 標準은, 大概 四個 音階(E-e3)의 範圍에 든다。 그러나, 個性에 있어서는 二個 乃至 二個半의 音階, 말할 때에는 一個半의 音階에 不過한다。 音의 高低는, 一般으로 목청의 長과 厚에 關係된 것이다。 그런데, 길고 두터운 목청을 가진 男子의 목 소리는 低音이요, 짧고 얇은 목청을 가진

女子나 兒童의 목소리는 한 音階쯤 높게 내게 된다。同一한 목청으로 各種 高低를 내는 것은, 목청을 緊張시키고 또 氣流를 強하게 하는 데에 달려있다。氣流의 強弱에서 소리의 強弱이 생길 때에, 같은 高低를 保存하려면, 輕진 목청을 同時에 되게 하든지 늦후든지 하여야 된다。

소리청이 떠는 것을 알아 보는 법은 소리그림틀(Kymograph)로써 實驗하는 것이 가장 正確하다。그러나, 우리의 손만 가지고도 능히 알 수가 있는 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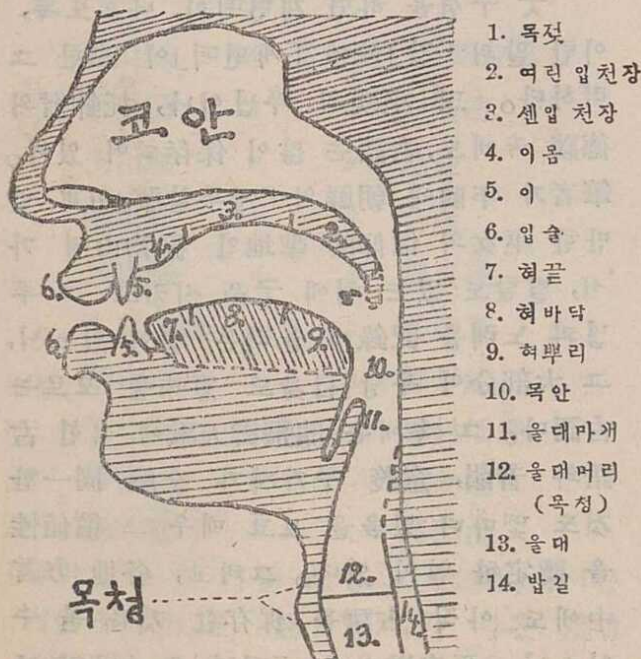
- (1) 喉頭에 딱 붙거진 자리 우쪽에 손가락 끝을 대면, 그 손가락에 떠는 것을 느낌。
- (2) 정수리 우(頂上)에 손바닥을 대면, 그 손바닥에 떠는 것을 느낌。
- (3) 귀구멍을 손으로 막으면, 머리 속에 떠는 것을 느낌。

2. 입 (口)

聲帶의 振動으로 생긴 소리는 한 가지

(셋째그림)

소리내는들의 모든 자리



토되, 여러 가지 소리를 입밖에 낼 수가 있는 것은, 곧 여러 가지 共鳴管의 모양을 만들어 내는 입의 짓이다。또 떨거나, 갈거나, 러치거나 하야, 여러 가지 소리(子音)를 낸다。이 複雜한 소리를 만드는 입을 다음과 같이 갈라볼 수가 있다。

(1) 목안(咽頭), 喉頭우의 空間이니, 울대(氣管), 밥길(食道), 입, 코로 러진 곳이다。울대와 밥길의 사이에는, 울대마개(會厭)가 있고, 입과 코의 사이에는 목젓이 있다。이 목안은 受動的 機能을 가질뿐이요, 제 스스로 變動이 없다。

(2) 혀(舌), 매우 發達된 筋肉이니, 各樣의 形態와 位置變動이 可能하야 입안으로 하야금, 各樣의 共鳴管이 되게 한다。그 자리를 혀뿌리, 혀바닥, 혀끝으로 나눌 수가 있느니, 그 中에 혀끝은 더욱 많은 作用이 있다。

(3) 입벽(口壁), 여섯 자리를 갈라 볼 수가 있느니, 목젓, 여린입천장 軟口蓋, 센입천장(硬口蓋), 이몸, 이, 입술들이다。여린입천장과 센입천장 사이는 손가락으로 만져서, 가려 볼 수가 있다。

3. 코 (鼻)

코안은 목안의 우앞쪽에 있어, 뒤는 목안으로 러지고 앞은 코구멍으로 러졌느니, 한 固定된 共鳴管으로 소리낼 때에 목젓을 떼면, 그러토 기운이 통하야 코 소리가 나게 된다。

延禧專門學校教授

崔 鉉 培 先生 지은

우리말본

第一卷

소리갈(聲音學)

本書는 聲音學에 關한 것을 詳細 說明한 것이니 한글 研究에 必備한 良書。

定價 九十錢

發行所 延禧專門學校出版部

# 地名 研究의 必要

李 熙 昇

言語를 研究함에는 여러 가지 部門이 있을 것이나, 이를 研究하는 態度로 보아, 爲先 大別하면 두가지 方式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垂直的이니, 卽 時間的으로 言語가 發達變遷한 過程을 考察하는 歷史的 研究를 이룸이요, 둘째는 水平的이니, 卽 空間的으로 現存하는 言語의 形態, 性質乃至 方言을 考究하는 것과 또는 二種 以上の 言語를 比較 研究하는 等事다. 이 두가지 方向의 研究는 서로 無關係한 것이 아니요, 또 全然 分離하여 研究할 수도 없는 것이다. 실상 齒車相補의 關係를 가져서, 어느 一方을 除外 或 無視한다면, 도저히 研究의 完璧을 期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朝鮮語에 있어서도, 歷史的 研究를 輕視하여서는 안된다. 現存한 言語만으로는, 이를 아무리 綿密精確하게 研究하여 내린 結論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危殆한 臆斷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그런데, 朝鮮語의 歷史的 研究에 留意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異口同聲으로 材料의 缺乏을 한탄한다. 勿論 朝鮮말을 記錄하는 文字가 發明된 것도 不過 五百年의 일이니,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나, 朝鮮語라는 한 獨立한 語族이 처음으로 成立한 時代부터 以後 오늘날까지 내려온 千歲月에 比하면, 朝鮮語의 文獻時代(漢字를 借用한 記錄은 莫論하고)는 比較할 수 없을만치 짧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하니, 五百年 以後의 文獻만에 依據하여, 歷史的 研究를 한다는 것이, 그 얼마나 감질날 일인가. 하물며, 訓民正音 以後에, 한글

로 刊行되었든 書籍도 많이는 散逸되어 없어졌음에리오. 이와 같은 狀態에 있으니, 우리말 研究家들의 歎息은 至當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研究方法 如何에 依하여야는, 材料가 그렇게 缺乏한 것이 아니니, 오늘날까지 發見된 文獻만 하여도, 相當히 있으려니와, 우리는 文獻 以外에서도, 古語의 아랍을 얼마든지 주을 수 있는 것이다. 例를 들면, 口碑로 傳誦되는 歌謠, 傳說, 古談 속에서도 집어낼 수 있고, 속담(俚諺)에서도 發見할 수 있다.

번개가 잦으면 벼락늦  
이라는 말의 「늦」이라든지  
여원개 겨스득에 다리우면 덕여원다  
라는 말의 「다리우」는 亦是 우리가 잊어 버려가는 옛말이다.

갈에서 좀난다.  
곳 구경을 하면 계면떡이 나오도록,  
이란 말의 「갈」이나 「계면떡」이 또한 그러하다. 또 巫覡의 푸널이나, 托鉢僧의 德談 속에도, 古語는 많이 保存되어 있다. 筆者가 年前에 朝鮮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한 巫女의 信仰的 聖地인 德物山에 가서, 별탈도 없는 데에 곳을 시키고 그 푸널과 노래를 記錄에 올린 일이 있으니, 그 大部分이 무당 自身도 意味를 모르는 古語다. 그 속에는 龍飛御天歌에 적힌 古語와 音韻, 意義 두가지가 全然 同一한 것도 몇마더 있음을 보고 매우 그 價値性을 認定한 일이 있다. 그리고, 各地方言中에도 아직 古語를 保存한 것을 볼 수 있으니, 平安道에서 「저녁」을 「나죄」라

함은 訓蒙字會, 杜詩諺解等에 많이 보이는 바요, 平北 定州郡 等地에서는 龍飛歌의 이른바。

뿌리 깊은 납근 바람에 아니 뭘새라하는 「뫼다」는 말이 고대로 保存되어 있다。

이와 같이, 方言을 蒐集하여 研究하는 속에서 古語의 이삭을 많이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以上은 모두 文献 以外에서 古語의 材料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우리는 上述한 바 여러 가지를 뫼 수 있는 대로 採錄하기에 힘쓰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와 같은 것을 採集하는 데는 聲音上 精確을 期치 않으면 안될 것이니, 거저에는 相當한 訓練을 要한다. 그런데, 以外에 古語를 가장 忠實히 또 豊富히 우리에게 提供하는 것이 있으니, 그는 곧 「地名」이다. 地名은 그 土地와의 固着性이 가장 强하여, 容易히 變하는 것이 아니다. 그뿐 아니라, 採集上에도 아무 困難을 感치 않을뿐 아니라, 조금만 注意하면 그닥지 訓練을 要할 것도 없는 것이다. 지금 몇가지 例를 爲先 古文献에서 들어 보면 三國史記 地理志에

兔山縣	本 高句麗	烏斯 <sup>○</sup> 舍 <sup>○</sup> 達
松山縣	〃	夫斯 <sup>○</sup> 達
土山縣	〃	息 <sup>○</sup> 達
蘭山縣	〃	昔 <sup>○</sup> 達
菁山縣	〃	加支 <sup>○</sup> 達
大豆山城	〃	非 <sup>○</sup> 達忽
犁山城	〃	加尸 <sup>○</sup> 達
釜山縣	一云	松村活 <sup>○</sup> 達
僧山	〃	所勿 <sup>○</sup> 達
功木達	〃	熊閃 <sup>○</sup> 山

等이 있으니, 이를 보면, 北部朝鮮에서는 古代에 「山」을 「達」(달)이라 이른 것이 分明하다.

또 高峰縣(達乙省縣), 達忽(高城), 高木根(達乙斬)等에 依하면, 達은 山이란 뜻뿐 아니라 「뫼」다는 뜻도 가진 것 같다. 또

沙川縣	本 高句麗	內乙 <sup>○</sup> 買 <sup>○</sup> 縣
伊川縣	〃	伊珍 <sup>○</sup> 買 <sup>○</sup> 縣
淸川縣	〃	薩 <sup>○</sup> 買 <sup>○</sup> 縣
橫川縣	一云	於斯 <sup>○</sup> 買 <sup>○</sup>
南川縣	〃	南 <sup>○</sup> 買 <sup>○</sup>
述川郡	〃	省知 <sup>○</sup> 買 <sup>○</sup>
深川縣	〃	伏斯 <sup>○</sup> 買 <sup>○</sup>
狂川縣	〃	也尸 <sup>○</sup> 買 <sup>○</sup>
其買縣	〃	林 <sup>○</sup> 川

이라든지

水城郡	本 高句麗	買忽 <sup>○</sup> 郡
水谷城縣	一云	買旦忽 <sup>○</sup>
水入縣	〃	買伊 <sup>○</sup> 縣
泉井郡	〃	於乙 <sup>○</sup> 買 <sup>○</sup>

等을 보면, 「買」字에 對하여, 「川」, 「水」, 「井」等의 意味를 몰랐으니, 「뫼」의 古語되는 「뫼」或은 「므」의 音을 「買」로 表記한 것이 아닌지?

亦是 三國史記 地理志에 夫斯波衣縣(松峴縣), 扶蘇岬(松岳郡), 夫斯達縣(松山縣)等의 地名으로부터 「夫斯」乃至 「扶蘇」가 「松」의 古語인 것을 미루어 알 수 있고, 糜谷縣(一云 首乙谷), 於支吞(一云 翼谷), 水谷城縣(一云 買旦忽), 十谷縣(一云 德頓忽)이라든지, 習比谷의 「谷」字에 割註하여 「一作吞」이라 한 것을 보면, 「谷」의 古語가 「吞」, 「旦」, 「頓」等 音에 類似한 것이었으니, 저 日本語에서 「谷」을 「タニ」로 읽는 것과 무슨 關係가 없을까?

以上은 古文献에 나타난 數例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어니와, 現代의 地名을 採集한 中에서 두어 가지를 적어 보려 한다.

「大田」을 鄉老村叟들은 아직도 「한밭」

이라 하여, 「大」를 「한」으로訓하였으니, 저 龍飛歌에 「大牛」를 「한쇼」라하고, 「大雨」를 「한비」라 한 것과 아울러 보아, 古語에 「大」를 「한」이라 이른 것은 變通할 수 없는 事實일 것이다. 「大田」以外の 「大」字 든 地名을 調査하여 보면

大栗(한밤)	忠南 天安郡 成歡面 梅珠里
大川(한내)	〃 舒川郡 東面 深洞
大川(한내)	〃 瑞山郡 瑞山面 邑內洞
大橋(한다리)	〃 〃 〃 〃
大寺洞(한적골)	〃 天安郡 豐歲面 美竹里
大田(한밭, 합밭)	慶北 達城郡 嘉昌面 梧洞
大岩(한덤, 한디미)	〃 〃 〃 〃
大峴(한재)	〃 〃 〃 〃
大栗(한밤)	〃 安東郡 一直面 院洞
大谷(한실)	〃 〃 〃 〃
大田(한밭)	〃 淸道郡 角南面 禮里洞
大寺洞(한적골)	〃 尙州郡 成昌面 舊鄉里
大谷(한실)	慶南 統營郡 統營面

이것을 보아, 地名에 얼마나 「한」이란 古語가 豊富히 保存되었는가를 알 것이다. 지금 「大道」를 시뮴그러진 하이길라 말로 「新作路」라 많이 하지마는, 그러나, 「행길」이란 말도 지지 아니할만큼 흔히 使用된다. 이 「행길」은 卽 「한길」의 變音된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한가지 「谷」字 든 地名을 추려 보면

栗谷(밤실)	忠北 槐山郡 槐山面 西部洞
石谷(돌실)	忠南 天安郡 成歡面 梅珠里

金谷(쇠실)	忠南 天安郡 成歡面 梅珠里
文谷(섬실)	〃 舒川郡 東面 深洞
竹谷(대실)	〃 大田郡 鎭岑面 芳洞
九老谷(구레실)	〃 〃 〃 〃
鷹谷(막실)	〃 天安郡 豐歲面 美竹里
柯谷(가실)	全南 谷城郡 玉果面 里門里
石谷(돌실)	〃 〃 〃 〃
玉谷(옥실)	〃 光陽郡 光陽面
栗谷(밤실)	〃 和順郡 同福面 漆井里
石谷(도실)	〃 〃 〃 〃
竹谷(대실)	〃 〃 〃 〃
艾谷(숙실)	〃 〃 〃 〃
熊谷(곰실)	〃 〃 〃 〃
蟻谷(개미실)	慶北 安東郡 一直面 院洞
大谷(한실)	〃 〃 〃 〃
山谷(미실)	〃 〃 〃 〃
凡谷(범실)	〃 淸道郡 角南面 禮里洞
九谷(구실)	〃 〃 〃 〃
梨谷(배나무실)	〃 〃 〃 〃
義谷(이실)	〃 〃 〃 〃
金谷(금실)	〃 〃 〃 〃
馬谷(마실)	〃 〃 〃 〃
大谷(한실)	慶南 統營郡 統營面
昌谷(저실)	〃 昌原郡 昌原面 道溪里
梧谷(모기실)	〃 泗川郡 泗川面 宣仁洞

卽 이 「실」은 「골작이」란 말의 古語일 것이니, 내가 「溪」를 「시내」라 읽을 때에 「작은내」 卽 실과 같이 「가는내」(細川)란 말로 생각한 일이 있었지마는, 이 地名을 採集하여 놓고 볼 때에 「시내」의 「시」



는 疑心 없는 「谷」이란 「실」의 「ㄹ」終聲이 脫落된 것이 (ㄹ이 니과 만날 때의 朝鮮語의 音韻 法則에 依하여) 分明하다고 생각한다。即 산골작이에 흐르는 작은 내라는 말일 것이다。日本語에서도 「溪」를 「タニガハ」(谷川)로 訓하는 것이 亦是 同曲이 아닐가 한다。

여기에는 다만 數例만을 보이었으나, 地名 中에는 여러 가지 재미 있는 古語가 많이 있다。이 地名을 調査 研究함을 따라, 歷史上에 千古의 疑問으로 남아 있는 古地名 或은 其他의 모든 名稱들이 어름 풀러듯 解釋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近者에 와서는 郡을 合하고, 面를 併하며, 里洞을 廢한 후로, 地名이 모도 變態的으로 되어, 어떤 것은 두 洞里名에서 한 字씩 떼어 보아서, 이름을 짓고, 또 어떤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닌 아무 關聯 없

는 세 名稱을 붙여서 부르게 되어, 固有한 地名이 漸次 湮滅되어가니, 學術上으로 보아서 一大 痛恨事라 아니할 수 없다。그러나, 多幸히 固有한 地名을 아직 잊어버리지는 않았으니, 지금 곧 採集하여 두지 않으면, 後日 噬臍의 歎을免치 못할 것이다。

本稿는 이로써 끝을 막거니와, 萬一 讀者 中에 以上에 例示한 地名을 보시고, 錯誤된 點이 있음을 發見하실 때는 수고들 아끼지 마시고 下敎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또 筆者와 同感을 가지신 분은 당신 사시는 洞里의 地名을 採集하여 보내 주시면, 더욱 感謝함을 마지 않겠습니다。

이 글에 「있다(有)」를 「있다」로 쓴 것은 쓰신 이의 注意한 바가 있었으므로, 그대로 한 것입니다。—編輯者—

## 북 관 사 투 리 멧

### 이 상 춘

지난 여름, 한글 강습의 일로 함경 남 북도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얻어 들은 사투리를, 이 아래 적어 써 참고에 이바지 하려 한다。

드뷔 (혹 드위) = 두부, 豆腐  
 당쉬 = 강내이, 玉蜀黍  
 쉬 (혹 밥쉬) = 수수  
 가댕이 = 장기, 보장기  
 강차위 = 가래  
 햄 (혹 햄세) = 건진이 반찬  
 나무무튀 = 나무도막  
 구죽 = 굴뚝 煙突  
 가마목 = 아레목  
 부석니마 = 부뚝막

부수개 = 부엌  
 울바리 = 중깃 (建築用語)  
 가마뚜베 = 솥뚜껑  
 윤뒤 = 인두, 燒鍋  
 대롱이 = 다리미, 熨斗  
 달비 = 다리, 髭  
 오곰매끼 = 다님  
 바지머 = 허리머  
 허리머 = 婦人의 허리머  
 등거지 = 燈檠  
 모래 = 黝주박, 작은 합지  
 물합지 = 작은 합지, 「모래」보다 큰것  
 땡명대 = 홍도깨  
 피날 = 피, 稷

노장이=늙은이의 卑稱  
안질=눈, 眼의 敬稱  
가마치=솔홀치, 물에 만 누른 밥  
춧물=두부춧물  
드리=비지, (두부찌기)  
살채기 (또 가닭살)=살, 사락구니  
보대 (혹 보대이)=보지, 窠部  
두렁이=여름에 입는 두루마기  
제마기 (혹 제막)=두루마기(冬服)  
승천 (또 가승)=거스름 돈  
솔=부추 (葷菜名)  
명렁이=거루, 큰 거루  
망챙이 (혹 망채)=胃  
내굴=내 煙  
장재=板障  
백재=울타리  
어리=나물밭 울타리  
도죽=담, 牆  
바줄버침대=바지랑장대  
생지=행주  
따바리=파리, 머리에 일 때에 바치는 것

장부=가래  
가래=넙가래  
배떼리=옹배기  
고내기=배행이  
번자=벌떡찌  
좀자귀=자귀, 가귀  
잔살=민빚 (梳名)  
방아덕풀=방아공이  
방아호박=방아화  
열 (혹 역들)=삼, 열삼, 野生麻  
퇴꼬리=도꼬마리 蒼耳  
나시=냉이  
소토지=소토장이  
목대기=木枕  
바를 (혹 바울)=바다, 海  
바름물=바다물, 海水

쟁벼루=벼루집, 硯匣  
새철=납비, 鍋  
가마목젓=부적거리  
구시=구웅  
누불=놀, 霞  
생대이=霞  
국독이=고미래  
낫=뭉, 분깃  
선사내=未婚男  
새애기=未婚女  
다무로리=뽕배기, 二杯酒  
메꾸락지=개고리, 蛙  
소금장이=잡자리  
시각=끼니 (朝夕의 밥)  
오나조=오늘 저녁  
병사리=병, 瓶  
부르개=밥 밀콩이나 팥 따위  
잠사설=잠고대  
동의=호박, 南苧  
서감지=소뽕질  
나래=저녁  
새쓰개=미치광이, 狂夫  
중세=밤참  
애끼=同生  
시애끼=시동상

### 한글 研究의 寶物이 나온다

한글 研究熱은 極度에 達하였으나, 그 研究 材料의 缺乏을 痛恨하든 중, 佛敎社에서 去年 七月에 該社 主幹 韓龍雲氏가 全州 安心寺에서 發見한 諺解 圓覺經(十冊), 金剛經(二冊), 恩重經(一冊), 千字文(一冊), 數會(一冊), 都會 十五冊의 板本을 印出한다고 한다. 이 板本은 實로 距今 五百年前 世祖 때의 版刻으로서, 이 數本의 發見이 이미 學界에 큰 衝動을 주었다. 該社에서는 이것을 出版하여 有志에게 實費로 提供하려고 한다.

# 잘 못 쓰기 쉬운 文法

李

鉉

머 리 말

- 一. 「만은」과 「마는」
- 二. 「요, 이요」와 「요, 이오」
- 三. 子, 母音 아래 쓰는 接續詞 및 終結詞의 誤謬
- 四. 「합니다」에 對하여
- 五. 「함으로」와 「하므로」 「함에」와 「하며」
- 六. 「그리고」와 「그리고」
- 七. 「에」와 「에게」
- 八. 主格吐의 줄임

【注意】本文中에 使用한 文法上 術語들은 標準術語가 아니다. 例하면, 「母音, 子音」은 「홀소리, 닿소리」와 한 이도 있으나, 筆者의 생각엔 두가지가 다 맞지 않고 「열소리씨(開音素), 닫소리씨(閉音素)」라 하여야 옳을 줄 안다. 그러나, 讀者의 아직 便宜를 돌보아 그대로 쓴 것이다. 모든 術語 다 그러하다.

머 리 말

세상엔 『알고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곧, 細事에 注意凡然한 사람의 常識이 모자람을 說明하는 것일 것이다.

조선사람은 조선말을 잘 알며 조선글 잘 쓴다. 만일 그러했다면 그것은 矛盾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웬 일인지 조선사람의 손으로 쓰워진 글에는 뜻밖의 誤謬가 많다. 語法에 틀린 文章을 수두룩하게 發見할 수가 있다. 더구나, 文筆業者들의 글에 그런 誤謬가 많다 함은 더욱 慨歎할 바다.

이에 對하얀, 한 六七年 前에 東亞日報를 通하여 筆者가 몇번 잔소리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如前히 어떠한 新聞이나 雜誌를 보든지, 日常 오가는 書翰을 보든지, 그러한 誤謬가 重襲되어 오는 것이 事實인 以上, 지금에 여기에서 또 한번 이와 같이 되풀이함도 그리 意味 없는

짓은 아닐까 한다.

## 一. 만은 과 마는

만은 은 補助吐 만 과 은 이, 補助吐+補助吐=補助吐의 形式으로 合쳐서 된 合體補助吐로서, 두개 以上の 詞字나 詞句中의 어느 한개의 獨特性을 들 어 다른 것과의 區別을 表하는 말이요, 마는 은 反意同等接續詞니, 어느 詞字나 詞句에 다른 詞字나 詞字를 이어서, 이미 發表된 意思를 反對함에 쓰는 말이다. 例 들 들면,

1. 사구라 흠어진 뒤 모란 장미 시드는 데, 찬 서리에 국화꽃만은 더욱 젊어 지는듯.
2. 천하사람 잠자는데, 나 만은 깨어 있 네.
3. 온몸 으스러져도, 마음만은 꺾이지 말지라.
4. 온갖 것 다 좋아도, 울음만은 재미 없디.
5. 성질은 껌참은데, 마음의 검음만은 알 수 없는 일이야.
6. 선혈이 흐르는데, 빙그레 웃고 섯음 만은 장쾌한 일이로다.
1. 너는 나를 미워하지만(마는의 줄임), 나는 너를 사랑한다.
2. 가기는 간다마는, 내 어이 잇을소냐.
3. 꽃이야 폼다마는, 향내 없어 흥이로 다.
4. 웃기는 한다마는, 웃음 속에 슬픔 잇 네.

5. 그는 웃고 잊지마는, 이이는 울고 잊다。

【注意】上記 例文에 依하면, 만은은 名詞, 變成名詞, 名詞句 아래에만 쓰이고, 마는은 動, 形詞 及 動形詞句 아래에 쓰인다。

## 二. 요, 이요 와 요, 이오

요, 이요는 順意同等接續詞니, 文의 節과 節을 이어 주는 同時에 同種類의 詞字를 같은 값으로 順意로 이어 주는 것이요, 또, 요, 이오는 說明的 終結詞니, 우에 잇는 詞字나 詞句나 詞節을 받아 說明的으로 끝맺는 것이다。例를 들면 아래와 같다。

1. { 뛰는 것은 말이요, 힘센 것은 소다.  
 { 힘센 것은 소요, 뛰는 것은 말이다.

2. { 이 말은 잘 뛰는 말이오  
 { 이 소는 힘이 센 소요

上記 例文中 (1)의 이요, 요는 接續詞요 (2)의 이오, 요는 終結詞다。그런데, 까딱하면 이 두가지를 混同하기 쉽다。

## 三. 子, 母音 아래에 區別해 쓸 接續詞, 終結詞

本來 조선말은 發音의 順便을 좇아서, 같은 吐라도 子音과 母音 아래에 쓰는 것이 다르게 되었으니, 卽 名詞의 子音 아래에 쓰이는 接續詞『이요, 이며, 이고』와 終結詞『이오, 이다, 입니다, 이라, 이니라, 이로다, ……이나, 인가, 이야, 입니까, 이십니까, 일가, 일지, 인지』等은 母音 아래에서는 『요, 며, 고』와 『요, 다, 비니다, 라, 니라, 토다, ……냐, ㄴ가, 야, 비니까, 십니까, ㄹ가, ㄹ지, ㄴ지』等으로 쓰이는 것이다。그래서,

1. 뛰는 것은 말이요 힘센 것은 소다.
2. 힘센 것은 소요 뛰는 것은 말이다.
3. 그가 누구나

이와 같이 쓸 것을

1. 뛰는 것은 말이요 힘센 것은 소이다.
2. 힘센 것은 소이요 뛰는 것은 말이다.
3. 그가 누구이나.

이와 같이, 『소, 누구』等의 母音 아래에도 『이요, 이다, 이냐, ……』等의 吐를 달아서 『소, 누구』라는 名詞를 『소이, 누구이』란 單 名詞로 誤解키 쉽게 쓰는 이가 있다。그것은 큰 잘못이다。

## 四. 합니다에 對하여。

『합니다, 먹읍니다(먹습니다), 누구니까, 누구십니까』를 흔히,

『합니다, 먹읍니다(먹습니다), 누구니까, 누구십니까』로 잘못 쓰거나, 또는 甚至於

『합이다, 먹읍이다(먹습이다), 누구이까, 누구십이까』로 잘못 쓰는 이가 있다。그런데, 後者는 語意가 全然 바뀌는 것이다。그러나, 그것은 語音이 아주 틀리는 것이며, 혹 그 誤謬를 犯치 않기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마는, 前者 卽 『합니다…』는 『합니다……』와 그 發音이 똑 같으므로, 체계 『합니다……』의 誤謬를 犯키 쉬운 것이다。그러므로, 먼저 『합니다……』가 『합니다……』로 發音되는 理由를 알아가지고, 『합니다……』를 『합니다……』로 는 잘못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그 理由는 이러하다。

『비』은 兩唇破裂音이요, (口)은 唇鼻音이요, 『니』은 舌端鼻音인데, 『비』이 『니』보다 다른 點은 鼻音만이 없는 것이다。그런데, 『합니다』 할 때엔, 『비』이 『니』과 連接하는 同時에 『니』이 가지고 잇는 그 鼻音을 맞나므로, 唇鼻音 卽 『미』으로 變하는 것이다。그러므로, 『합니다』는 『합니다』와 같이 發音된다。이것을 알기 쉽게 說明하자면 아래와 같다。

日二唇音  
 ㄴ二舌端鼻音 (+)

日+ㄴ二唇音+舌端鼻音

二唇音+鼻音+舌端鼻音

二(唇音+ $\frac{1}{2}$ 鼻音)+( $\frac{1}{2}$ 鼻音+舌端鼻音)

二唇鼻音+舌端鼻音

그런데, 唇鼻音=ㄴ

∴ 日+ㄴ = ㄴ+日

(但, 『합니다』나 『하나다』가 發音이 같은 以上, 何必 『합니다』로 쓸 必要가 어디 있나 하는 疑問이 나거든, 『합디다, 합시오』의 發音을 생각하라.)

### 五. 함으로 와 하므로, 함에 와 하매

『로, 으로, 에』는 補足關係吐로서, 『로, 으로』는 使用을 意味하고, 『에』는 位置를 意味하는 것인데, 『로』는 母音(但, 已下엔 쓰임) 아래에 쓰이고, 『으로』는 子音 아래에, 『에』는 子母音 아래에 쓰이되, 모두가 體言 卽 名詞, 動名詞(Gerund) 아래에 쓰이는 것이요,

『므로, 이므로, 으므로, 매, 이매, 으매』는 修飾關係吐로서 모두 理由를 意味하는 吐인데, 『므로, 이므로, 으므로』는 用言 卽 形, 動詞와 體言 아래에, 『매』는 用體言 아래에, 『이매』는 體言 아래에, 『으매』는 用言 아래에 쓰이되, 『므로』는 母音(但, 動詞 已下엔 쓰임) 아래에, 『으므로』는 子音 아래에, 『매』는 母音 아래에, 『이매, 으매』는 子音 아래에 쓰이는 것이다. 만일, 이것들의 意味를 英語와 對照한다면,

『므로, 이므로, 으므로, 매, 이매, 으매』들은

『In that, In consequence. For(or because) it is.... For(or because) one do...』들과 같

을지며, 『로, 으로(方向을 뜻할 땐 말고)』들은 『With』와, 『에』는 『At, On』들과 같을 것이다. 用例를 들면,

1. 노래를 히므로 마음이 기쁘다.
2. 이것은 피므로 물보다 붉다.
3. 손이 히므로 선빈 줄을 알아라.
4. 이것은 돌이므로 흙보다 단단하다.
5. 뒷 걸음은 물러감이므로 재미 없다.
6. 쫓아와 잡으므로 수없이 물들렸다.
7. 꽃이 붉으므로 보기에 아름답다.
8. 노래를 부르매 필듯이 기쁘다.
9. 그것은 피매 물보다는 붉으리라.
10. 손이 히매 선비로 보이리라.
11. 그것은 돌이매 단단할 것이다.
12. 꼭 잡으매 깎도 못하리라.
13. 꽃이 붉으매 나비가 날아든다.

1. 돌로 얼음을 끈다.
2. 붓으로 글씨를 쓴다.
3. 노래를 함으로 일을 삼는다.
4. 글을 읽음에 對히야.....
5. 종이에 그림을 그리어라.

이와 같다. 이에 依하여 볼진댄,

『노래함으로, 그림으로』들은 『노래하으로, 그림으로』들과 뜻이 全然 다르고

『일하매, 그림매』들은

『일함에, 그림에』들과 뜻이 全然 다를 을 알 것이다.

### 六. 그러고 와 그리고

그러고는 그러하라는 形容詞에서 하가 줄고 고가 더하여 된 말이요, 그리고는 그러케하=그러하라는 動詞에서 하가 줄고 고가 더하여 된 말이다. 그러므로, 그러고를 쓸 경우에 그러고를 쓰면, 全體의 語意 혹은 文意가 全然 바뀌기도 하고, 또는 아주 말이 成立지 못하는 것이다. (以下 66 頁로 繼續)-

## 조선사람은 조선말을 얼마나 아는가?

=延禧專門學校 文科 入學試驗에 朝鮮語를 보이고 나서의 所感=

崔 鉉 培

조선사람이 조선말을 얼마나 아는가? 특히 中等乃至 專門 敎育을 받은 朝鮮의 靑年들이 朝鮮말을 얼마나 아는가? 이것을 硏究할만한 物음거리이다. 모든 事象을 科學的으로 생각할 줄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確實히 價値있는 硏究問題일 것이다.

그러나, 大多數의 조선사람에게는 이것은 何等의 意味있는 問題가 되지 아니한다. 그네들의 생각에 따를 것 같으면 조선사람——長成한 조선사람은 依例로 조선말을 다 아는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조선사람으로는 조선말을 배우기에 時間과 努力을 費用할 必要를 느끼지 아니한다. 그리고, 조선사람의 일부러 배워야 할 것은, 다른 나라의 말과 글이라 한다. 이는 朝鮮 數百年來의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하여, 그네들에게 必要한 것은, 다만 他國語文의 辭典뿐이요, 제 나라의 말과 글의 辭典은 도모지 必要를 느끼지 아니하여왔다. 그러한 結果로, 오늘날까지 우리는 우리말의 辭典 한 卷을 만들어 놓지도 못하고, 도리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조선말의 辭典을 먼저 만들어 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따름이다. 이같이 矛盾된 일이 다시는 없겠건마는, 조선사람에게는 이것이 부끄럽기는 커녕 當然한 일로 생각되고 말아 버린다. 왜 그러냐하면, 조선사람은 조선말을 다 알기 때문에 다시 일부러 辭典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찾아 가면서 말이나 글의 공부를 할 必要가 조

금도 없은즉, 조선말 사전은 조선사람에게 必要한 것이 아니라, 조선말을 공부하는 외국 사람에게만 必要한 것이다. 朝鮮語 辭典을 朝鮮 사람이 만들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은, 理의 當然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딴은 그러하다! 조선말은 畢乃 조선사람의 말이다. 그것은 朝鮮民族의 五千年이란 길고 긴 歷史的 文化的 生活에서 產出된 것이며, 保育된 것이며, 發達된 것이다. 그에 對한 가장 깊은 理解와 切實한 愛着과 自由 自在한 使用力을 完全히 가질 이는 조선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만 한 理論이며, 理想일 따름이다. 오늘의 조선사람은 제 말에 對한 理解와 사랑과, 驅使力과를 充分히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음은 絶對한 事實이다. 오늘날 敎育있는 조선靑年은 他國語文에 對하얀 正當한 理解와 正確한 發表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 말인 조선말에 對하얀 正當한 理解와 正確한 發表力을 가지지 못함은, 否認할 수 없는 一般的 事實이다. 그리하여, 그네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 조선말인지 일본말인지 영어인지 도모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惝惝이의 뒤범벅이다. 그리하여, 朝鮮말로써는 自己의 思想, 感情을 正確하게 適切하게 發表할 수 없다 함으로써, 도리어 한 자랑거리로 아는 形便이다. 우서운 일이다. 처음에는 아는 것이기 때문에 배울 必要가 없다 하여, 輕視 받던 조선말이 인제는 또

른다는 자량을 理由삼아 不問에 물이게 되었다.

大體 말이란 것은, 그 입자된 民族의 文化的 努力의 產物인즉, 이를 充分히 理解하려면, 學習의 努力이 必要한 것이다. 오늘의 世界 各國의 初等 敎育에서부터 專門 敎育에 이르기까지의 敎育이 一面으로 보면, 言語의 敎育이라 할만하다. 初等 學校에서는 집안에서 배우지 못한 말을 배우고, 中等 學校에서는, 初等 學校에서 배우지 못한 말을 배우고, 專門 學校에서는 中等學校에서 배우지 못한 말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 나라의 말은 理解되며 使用되며 育成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사람이 그 나라의 말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 各 個人의 받은 敎育과 從事하는 職業의 差를 따라서, 그 가진 바 語彙의 種類와 數가 各各 다를 것은 當然한 일이다. 假令 英國人이라고 英語를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朝鮮人이라고 朝鮮말을 다 안다고 생각하여서 안 된다. 그러케 생각함은 結局 그 생각하는 이의 無識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만다. 世界 어떠한 나라를 勿論하고, 그 國民이 日常 言語生活에서 쓰는 單語(單語)의 數는 그다지 많지 못하다. 普通 敎育있는 사람들의 가진 語彙의 範圍와 數는 그 國語의 全體에 比하면, 極히 微少한 部分에 지나지 못한다. 이제 英語의 큰 辭典을 보면, 그 語彙의 總數가 十二萬 (1889年版 Webster's Unabridged Dictionary의 語彙數가 十一萬 八千 單語이다.) (日本語 辭典에는 富山房 出版, 大日本 國語辭典의 語數는 二十餘萬이라 하였고, 그亦是 같은 집에서 낸 大英和辭典의 語彙數는 固有名詞 八千 四百 十一을 合算하여, 十四萬 一千 二百 餘라 하였다.) 以上인데 現代 敎養있는 英人의 一般 使用語는 三

千 乃至 四千語이요, (活用形은 치지 않고), 大思索家, 大能辯家라도 一萬 語 以上은 드물며, 막스 뮐러 (Max Mueller(에 依하면, 밀톤(Milton)은 八千語(散文은 除外하고)를 썼고, 셰익스피어(Shakespear)는 一萬 五千 語를 썼다 한다. (그리고, 舊約聖書의 用語數가 五千 六百 四十二 語라 한다.) 이로서 본다면, 大學을 마친 紳士들도 自國語의 三十分 乃至 五十分의 一밖에 쓰지 못하며, 大文豪 大詩人도 自國語의 約 十分의 一을 쓸 수 있음이 그 最高點임을 알것도다. 그런데, 朝鮮語의 數는 朝鮮總督府에서 編纂한 朝鮮語 辭典에 모인 것이, 五萬 八千 六百 三十九 語이요, 韓英字典이 約 八萬 二千 語이요, 李常春님의 모은 語彙가 約 九萬 餘어라 하니, 萬若 完全히 朝鮮語를 모는다면 無慮 十五萬 語는 될 것이다. 이러한 수 많은 朝鮮말에서 普通 사람이 얼마나 알 것인가? 또 學者 文士라 하는 이들이 얼마나 朝鮮말을 알아 쓸 能力을 가졌는지. 이것은 正히 우리들의 한 研究 問題일 것이다.

何如든 英國사람이라고 英語를 다 아는 것이 아님과 같이, 朝鮮사람이라고 決코 朝鮮말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特別히 朝鮮사람의 羞恥라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當然한 現象이다. 다만 모르는 것을 다 아는 척하는 것이 잘못이며, 모르는 것을 알기 爲하여 공부할 줄을 모르는 것이 정말 수치일 따름이다. 우리에게서 우리 말의 말광(辭典)이 없음이 큰 수치이며, 더욱이 말광 하나 없이 能히 文化生活을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當然히 지나야 가는 것이 큰 수치이다.

× × ×

내가 敎務을 가지고 있는 延禧專門學校에서 今春 文科 入學試驗에 朝鮮語 科目

을 두었다。專門 學校 入學 試驗에 朝鮮語를 치르게 함은 이것이 처음이다。入學 志願者는 勿論이요, 全 社會 사람들도 대단히 異常스러운 感을 가졌을 줄로 안다。『朝鮮사람이 조선말 試驗이란 大體다 무엇인가! 이러케 생각하였을 것이다。조선말도 모르는 조선사람이 專門 學校에 入學하려고 할가?』—이러케들 생각하였을 것이다。그러나, 事實이 如何하였을가? 試驗의 結果는 어땠던가? 爲先 그 問題부터 보자—

### 조선어 試驗 問題

一. 다음의 말의 뜻을 解釋하고 그것으로써 適當한 말 한 마디씩을 만들라。(答案 本紙)

1. 시름없다
2. 그지없다
3. 상없다
4. 짐짓
5. 여간

二. 다음의 俗談의 뜻을 解釋하라。(表裏 兩 面의 뜻) (答案은 本紙에)

1. 한 집에 김벌감 성 포른다.
2. 시앗 싸움에 요강 장수다.
3. 보리 고개에 죽는다.
4.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
5. 우지 아니하는 아이 젖 주랴.

三. 다음의 時調를 解釋하라。(以下 二問의 答案은 別紙에)

草原의 靜寂(白頭山 갓든 길에)。  
太古寂 인연 없어 찾을 길 없드려니,  
無邊 草原 에 이르러 分外 淸福 누리나다。

어디서 사슴이 울어 靜寂 더욱 깊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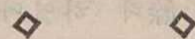
四. 作文題

『專門 學校 入學 試驗에 朝鮮語 科目이 잇음을 보고』(限 一張)

이 問題를 꾸며 낸 趣意를 말하면, 中等 學校를 마치고, 專門 學校에 入學을 志願하는 조선 青年의 朝鮮말에 對한 理解力과 使用力이 얼마나 한가를 알아보고저 함에 잇다。그리고, 綴字法 같은 것은 하나도 묻지 아니하였다。이는 오늘의 各 中等 學校에서 朝鮮語 教授 內容이 아직 統一이 없기 때문에, 志願者들에게 不公平이 잇을가 함을 두려워한 때문이다。그래서, 다시 말하면, 朝鮮말에 關한 實質的 知識만을 묻고, 그 形式的 知識은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 答案의 內容을 詳細히 紹介하여, 이를 評論할 겨를이 없으니가, 그것은 讀者 여러분의 私試에 맡기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다만 成績에 對하여 한 마디만 하고저 한다。이 네 問題에 完全히 答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點數로 말하면, 80點 以上 맞은 이가 꼭 한 사람밖에 없었고, 大多數는 厚하게 주어서 及第의 標準點인 60點이 겨우 되었다。其中에는 四十點 以下 되는 것도 잇었다。三 四의 問題는 다 무엇라고 答을 하여서, 몇 點이라도 얻기는 어렵지 않지 마는, 一 二의 물음은 하나도 正解하지 못한 答案이 여럿이 잇었다。中等 敎育을 받은 朝鮮의 青年들이 가진 조선말의 知識은 餘地없이 들어 낫다。三의 「예」를 바로 사진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며, 「여간」을 「매우」로, 「짐짓」을 「진작」으로, 「시름없다」를 「걱정없다」로 답한 것이 여간 많지 아니하였다。

(1932. 5. 1.)





# 言語와 人間

柳 根 錫

## 『言語는 무엇이가』

言語는 有節的 聲音(articulate sounds)과 文字와 表情(Jesture)等を 綜合하여, 思想 感情을 表示하는 形式을 말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리고, 이보다도 狹意로는 思想을 表現한 有節的 聲音이 곧 言語라 하는 말도 있다. 어느 것으로 보더라도, 사람이 그의 뜻을 남에게 傳達하려고 音聲을 發한 것을 「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간단하게 한 말로 말한다면, 言語는 思想의 表現 器具 가운데 하나다. 原始時代로부터 그 發達된 자취를 살피더라도 마찬가지니, 未開한 原始人間이 그의 意思를 表示하려고 單純한 音聲을 發表하여서 그 뜻을 傳하는 形式이 漸漸 더 複雜해지고 더 綜合되어서, 人間 生活의 思想을 交換하는 言語 標號가 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事實일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表現되는 길을 볼 것 같으면 처음에 抽象化한 思索作用이 있는 다음에 그로부터 思想이 具體化되고, 그 思想이 表出되는 데에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言語요, 또 하나는 文字이다.

이 모든 것을 미루어 본다면, 人間이 自己의 思想感情을 發表하며, 他人과 交換하기 위한 要具로서 意識的으로 發表한 有節的 聲音이 곧 言語인 것이다.

『사라는 言語라는 아름다운 形式으로, 그 理念을 發表하는 高尚한 動物이다』

에머슨이 말하기를, 『사라는 사람 그 것만으로는, 半 밖에 아니 된다. 남은 半은 그의 表現이다』 (The man is half him-

self, the other is his expression.)하고 말했다.

가령 여기에 한 美人이 앉아 있다고 하자, 만일 그가 아무 말도 없다면, 그 어찌 정말 美人임을 알랴. 그의 마음이 고운 줄을 어찌 알며, 그의 사랑이 얼마인 줄을 어찌 알랴. 그러나, 그가 한번 입을 떼어, 옥 같은 이를 반짝이며, 구슬을 굴러는 듯한 말씨로 사랑 가득한 表現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 이로 보아서도, 후에 말한 에머슨의 말이 옳은 줄을 알 수 있다. 이 佳人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데에, 그의 고운 말을 얼마나 價値있는 것이었든가는 헤아리기도 어렵다. 만일 이러한 말의 表現이 없었든들, 그 아름다운 사람이 한 幅의 축은 그림과 무엇이 다를 것이라. 俗談에, 『말 한 마디로 千兩 빌도 값는다』하는 말이 있으니, 말 한 마디의 아름답고 아니함이 그 얼마나 사람의 情을 움직일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다. 實로 이 言語는 人間 生活에 있어서 빼어놓지 못할 重要한 機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言語는 個人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의 性格을 말하고, 民族에게 있어서는 그 民族性을 말한다』

그 사람이 現在 쓰고 있는 言語는 그 사람의 過去와 現在와 未來를 表示하여 준다. 그리고 그 사람의 音調까지라도 그 性格의 強弱等を 알려 준다. 똑 같은 事情에 똑 같은 경우를 당하여서는 사람마다 그 同一한 感情을 表示하는 말이 各各 그 사람됨에 따라 다르다. 가령, 어

느 어려운 딱한 事情을 甲乙丙 세 사람이 똑 같이 當했을 때에 세 사람의 發言이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르다고 하지。

甲……참말 딱했섯네.

乙……여보게 혼이 낫섯네.

丙……여보게 참 썩었섯네.

그들 세 사람이 한 간단한 以上の 말 한 마디를 가지고 보더라도, 그들의 人格을 알 수가 있으나, 甲은 學識 있는 점잖은 사람의 말이요, 乙은 世俗的인 사람이요, 丙은 그리 高尚하지 못한 사람이다. 반드시 이와 같이 꼭 말 한 마디로서 그 사람의 全體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日常 쓰는 用語를 다 모아 본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全體를 알 수 있는 것이다.

個人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民族의 用語는 그 民族性을 如實히 들어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따금 英美人을 對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듣는 그들의 言語의 差를 느낄 때에 그들의 서로 다른 國民性을 엿볼 수 있다. 같은 英語면서도 이제는 英語와 美語는 顯著하게 다르다. 美의 You can gess. 하는 말을 들을 때와 英의 I can fancy.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같은 뜻을 表한다 하더라도 美人은 이러한 語感を 좋아하고, 英人은 저러한 語感を 좋아하는 것으로 보아, 그 서로의 差를 볼 수가 있다. 言語와 國民性은 곧 서로 反映되는 密接한 關係가 있으니, 美麗한 音調로 짜아지는 佛語를 가진 佛의 國民性, 簡潔明瞭한 英語를 가진 英의 國民性, 素朴하고 든든한 獨語를 가진 獨의 國民性, 치렁치렁하고 며들며들하며 豪風이 淸장한 淸語를 가진 支那 國民性等을 살펴볼 때에, 言語와 國民性의 關係를 더욱 切實하게 느낀다.

『그 民族의 用語는 그 民族이 가진 最

貴하 財産이다.』

우리 人間이 地球上에서 每日 日光을 利用하며 살아가면서도 一分이라도 없으면 곧 困難한 日光의 惠澤을 忘却하고 지난다. 그와 같이, 우리의 言語에 있어서도 그 貴重함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나, 만일 一時에 그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에 비로소 言語의 無限한 貴寶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듯한 貴寶를 잘 쓰고 못 쓰는 것은 그 民族의 絶對의 幸不幸이 될 수 밖에 없다. 無慈悲한 말, 無氣力한 말, 無秩序하고 純粹치 못한 말을 쓰는 民族은, 물을것도 없이 蕪昧한 民族인 것이 事實이다. 본지가 오래되어서 이름은 잊었으나 어느 詩人이 말하기를, 『그 나라의 文化를 速히 알려면, 詩上에 쓰인 그 國語가 얼마나 아름답게 洗練되어 있는가를 보라』한 말을 본적이 있다. 과연 꼭 그러랴. 그 나라의 國語는 그 나라의 文野를 如實하게 表示한다. 그러므로, 言語를 研究하는 者는 반드시 自己의 아름다운 國語로 아름다운 民族性의 아름다운 思想感情을 發表하는 社會的 努力이 있도록 꾸준히 힘써야 할 것이다.

『言語의 純粹와 俗語 侵入』

言語는 純粹할수록 더 生命 있는 것이다. 外語 俗語等이 막 섞인 言語는 그만큼 自己의 領域의 侵害를 當한 不純한 말이고, 生命이 적은 말이다. 그 民族語는 그 民族을 土臺로 하여서만 가장 잘 生長하는 것이다. 가장 살아 있는 말을 쓰는 사람을 바루 그 나라에서 生長한 사람이다. 言語는 참으로 微妙한 것이어서, 그 쓰임에 依하여 살고 죽고 한다. 俗談에도 『말은 아야 다르고 어여 다르다』하는 말이 있다. 같은 말이라도 좀 더 效果 있게 쓸 수 있고, 或은 아주 좋은 말을

질뻘아서, 가치 없게 쓰는 수도 있다. 우리가 어느 때에 말해 놓고도, 自己 스스로 참 말 잘했다 하는 感을 느낄 때가 있다. 이 때에 使用된 말은 가장 生命 있게 쓰여진 말이다. 그러나, 意思는 充分히 表하고도 아주 죽은 말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늘 듣는 바와 같이 西洋人이 『그 거 머 될 수 있소 섭섭한 형편 나라나오』 하는 유의 말은 말서 우리말이 아닌 죽은 말이다. 日本서 어느 西洋人이 食事を 하다가 下人을 불러 『Potato kimono sayonara』 하는 말을 할 때에, 下人은 곧 와서, 감자 겹질을 벗겼다고 한다. 과연 意思는 表示되었다. 그러나, 畸形의 體軀를 가진 죽은 말이 아니냐. 어느 때는 혹 젊은 紳士가 물건을 흥정하다가, 『그 값을 좀 떠스카운드 해주세요』 한다. 썩 멋쟁이 말이다. 값을 내려 주세요 하는 말 대신에, 값을 좀 떠스카운드해 주세요 하는 말은 現代人의 感覺을 울리는 新鮮한 말인듯도 싶다. 그러나, 우리말 自體로 본다면, 自己 純粹性を 잃고 優越權을 빼앗긴 것이다. 이와 같이, 外來語 俗語 등이 섞이는 것은 그 말의 純粹性を 잃고 따라 그 生命을 줄이는 것이다. 에스페란토의 自然發生的 生命의 貧弱을 非難하는 것도 이 點에 있는가 한다.

『우리의 한글 운동과 장래』

모든 것이 科學的으로 科學的으로 하는 이 때에 있어서, 어찌 우리 한글만이 散漫하고 整頓되지 못한채 그대로 버려짐을 당하고 말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살려면 남과 같이 살려면, 첫 걸음으로 우리의 것을 살리고, 그 다음 남의 것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을 貴히 여기고, 내 것을 찾는 努力이 있지 못하면 남의 것의 좋고 나쁨을 도모지 모르는 법이다. 우리 한글의 簡潔 明瞭하고 活用性的의 豊

富함이 世界에 자랑할만하다 하는 것쯤은 이제는 論議할 것도 아니다. 이제는 오로지 無言한 가운데에 그것을 살리려는 眞摯하고 誠意있는 民族的 努力이 있어야 할뿐이다. 나를 主張하는 努力이 있는 때에, 비로소 나의 生命의 躍動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우리의 한글 운동이 나를 잊고 한글말을 잘 쓰라는 것이면, 가치 적은 일이다. 그러나, 그 한자 한 구 알아가는 것이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운동보다 더 귀한 운동은 없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의 寶物인 한글을 다음의 標語로 더욱 빛내자.

- (一) 우리의 한글을 法에 맞도록 바르게 쓰자.
- (二) 우리의 한글을 아름답게 하자.
- (三) 우리의 한글을 豊富하고 統一 있게 하자

—(끝)—

◇ 忽 三 版 ◇

延禧專門學校 講師 李允宰氏 著

文 藝 讀 本 【修正版】

此書는 現代 文人 學者의 名著 傑作中으로써 旁蒐拔抄하여, 小說, 詩歌로 評論, 解說, 紀行, 感想, 隨筆, 小品, 史傳, 逸話, 戲曲, 童話等에 이르러, 各種 文章이 다 優雅 絢爛하며, 一讀에 趣味를 殊覺할지며, 또 全部 한글 新綴字法을 使用하고, 卷末에 「한글 綴字法 一覽表」를 添付하여, 一目瞭然히 新式 綴字를 易曉케 되어, 文學과 綴字를 兼修하기에 至便하겠으며, 作者의 略歷과 難語의 解釋을 頭注에 붙이여 自修하기에 最適할 것이다. 震光堂 發行

◇ 定價 一冊 六十錢 (本會로 直接注文하신이게, 送料는 本會에서 負擔)

# 한글 教授에 對하여

字母 中心主義일 것을 提唱함

李 浩 盛

여러 해를 두고, 問題가 되고, 懸案이 되었든, 한글綴字法이, 當局의 熱誠과 勇斷으로 이미 解決되어, 多少 不完全은 하나마, 學理와 實用에 適合한 新綴字法이 實施되었다. 그리고, 이 新綴字法을 使用한 새 教科書가 벌써 卷三까지 나고, 그 內容이라든지 體裁라든지 從來의 讀本에 比하여, 확실히 進步的이라고 할 수 있다. 實로 우리 半島의 朝鮮語 教育이, 이토써 一新紀元을 劃하게 되었다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綴字法이 教科書를 살린다든지 죽인다든지 하는 것은, 尙히 우리 敎鞭을 드는 者의 熱心과 研究, 手段의 如何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立場에서, 나의 賤見薄識을 무릅쓰고, 大膽히 붓을 든 것이다.

나의 여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새로운 朝鮮語 讀本을 取扱하는 一般論이 아니라, 그 取扱하는 中 가장 重大하고 가장 困難을 느끼는 한글 敎授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點에 對하여, 年來 생각한 바 있어, 그 愚見을 말하여 써, 研究材料를 讀者 諸君에게 提供하는 同時에, 여러분의 指導를 받고져 하는 것이다.

## 一. 한글은 字母文字

위선 우리 한글의 本質을 밝히어 보자. 勿論 한글이 어떠한 글자인 줄은 다들 안다. 그러나, 그 認識이 一般的으로 대단히 不足한 연고로, 우리의 갈 바를 그릇하니까.

이 世界의 文字를, 그 構造와 性質上으로 大別하면, 表意文字와 表音文字의 두 갈래로 난다.

1. 表意文字。이것을 또 다음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 畫文字...北米土人이 使用한 것

나. 象形文字...墨西哥字, 支那 及 埃及의 最古 文字

다. 表語文字...支那 及 埃及의 文字

2. 表音文字。이것도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

가. 音節文字(綴音文字)... 假名(가나)

나. 雙用文字...세미틱文字

다. 字母文字 { 子母音 從屬的 文字...  
한글  
子母音 同位的 文字...  
알파베트

即 한글이나 假名나 다 表音文字에 屬하나, 한글은 字母文字요, 假名는 音節文字다. 字母文字라 함은, 英字와 같이 子音을 表示하는 子字와 母音을 表示하는 母字와를 結合하여, 비로소 한 完滿한 音節을 表示하게 된 文字요, 音節文字라 함은 前者와 같이 子字와 母字의 區別이 없고, 한 音節을 한 字로 表示하게 된 文字다. 그런데, 字母文字는 發音이 複雜한 言語에 適合하고, 音節文字는 發音이 單純한 言語에 適合하다.

字母文字 中에서 한글은 子母音 從屬的 文字에 屬하고, 알파베트(英字 따위)는 子母音 同位的 文字에 屬한다. 같은 表音文

字나 한글과 알파베트가 다름은, 이 점에 있다。即 한글은 母字를 子字에 從屬시키어 綴字하는 까닭이다。

## 二. 反切中心主義

우에 말한 바와 같이, 한글은 字母文字인데, 그 子母音 從屬的인 것이 탈을 내어, 從來의 教科書의 體裁라든지, 教授法이라든지, 죄다 이 字母에 對하여 無關心이라고 할만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한 것이다。古來의 慣習을 벗어나지 못하고, 字母를 가르키려 하다가는 고만 「가가 거 거……」하고 十四行 反切에 끌려 들어가고 만다。나는 이것을 便宜上 反切中心主義라 일컫는다。

대체 十四行反切의 正體가 무엇인가。 이는 쏘히 字母의 綴字法을 表解한 것에 不過한다。 그것은 世宗大王께서 訓民正音이라고 頒布하시었을 때에 形式을 가지고라도 明白히 알수 있는 것이요, 如斯한 反切表가 어느 때 어느 사람의 손에 된 것인지, 아직 分明치 않으니만큼 아무 權威도 없는 것이다。 어찌하얏든, 이 反切表를 後世의 사람이 한 表로 取扱하고, 한 表로 利用할 줄을 모르고, 아주 거기 붙잡히어, 저 假名과 같이, 音節文字 같은 取扱法을 取해야 왔고, 現在도 아직 그러케 하고 있다。 今日 普通學校 兒童은 勿論이요, 一般 社會의 한글의 綴字와 讀法이 拙劣하며, 新綴字法을 어렵게 생각하는 그 一大 原因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實로 反切中心主義에 있다고 斷言한다。

우리 朝鮮語를 表證하기에 아주 妙하게 된 字母文字로 하여금, 그 字母文字로의 訓練을 하지 않고, 音節文字化함은 암만 하여도 우리의 큰 失策이다。 日語와 같이 發音이 簡單한 말에는 音節文字로 充分하

나, 우리말과 같이 發音이 複雜한 말에는, 音節文字로는 到底히 當할 수 없다。 即 日語는 假名 四十八字(ㄴ까지 넣어)로써 充分하지마는, 우리말은 그 三倍 以上の 反切 一百五十四字 全部를 가지고도 그 百分之二도 써낼 수 없다。 이번 總督府에서 新綴字法을 採用하게 할에 功勞가 많은 田島氏의 調査에 依하면, 日語 音數는 七十八임에 對하여, 朝鮮語 音數는 八千七百 八十八이라 한다。 어떠한 標準下에 計算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朝鮮語音이 日語音과 比較할 수 없이 複雜한 것을 可히 證明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從來의 普通學校 朝鮮語 讀本이 과연 우리의 語音에 맞는 編纂을 하여 찾아 살펴보자。

從來에 範語法은 採用하였으나, 그 立脚點이 틀렸었다。 前述한 바와 같이, 한글은 字母文字요, 朝鮮語는 이 字母의 結合이 아니고는 到底히 表記할 수 없음을 아주 忘却하고, 한편으로는 十四行 反切의 拘束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終聲이 있으면 어렵다 하는 妄想으로, 日本 小學校의 國語讀本 即 音節文字로 된 것을 고대로 模倣하여 翻譯的으로 만들어 놓았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키 때문에 範語를 모는대 여간 苦勞를 하지 않으며, 及其他에 된 것은, 內容이 얼마나 貧弱하고 不徹底하여, 練習할 材料가 도모지 없었음은 이미 讀者 諸君의 熟知하는 바일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兒童에게 한글을 理解시킬 수가 있나。 그 字數만 하여도, 위선 一百五十四字로 假名の 三倍 以上이 되는데, 文字의 練習 材料가 如此히 貧弱하고, 거기다 兒童에게 아무 趣味 없는 法則을 꼭대기서부터 가르키려

든다。卽 法則을 演繹的으로 가르키려든다。兒童에게 어려운 聲音學上의 法則이 理解될 까닭이 없다。그것도 徹頭徹尾 法則的으로 取扱하였으면 좋으련만, 法則的이 시작하다가는, 금방「가갸거겨……」하고 反切의 練習에 沒頭하니까, 兒童의 腦裏에는, 그 가르킨 法則이 남아 있지 않고, 은연중에 슬어지고 만다。이 點에 對하야는, 이번 改正 讀本이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卽 終聲의 有無를 그리 가리지 않고, 言語를 主로 하야 法則을 歸納的으로 가르키려고 한 까닭이다。그러나, 역시 反切 中心主義의 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한글을 音節文字化함은 一層 더 濃厚하게 되었다。이것은 한글의 法則을 歸納的으로 取扱하려 함에서 나온 缺陷이나, 역시 한글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야, 根本 觀念이 틀린 까닭이다。참으로, 이것은 改正 讀本의 大失敗요, 眞遺憾으로 생각하는 바다。더군다나, 新綴字法이 實施되었기 때문에, 十四行 反切에는 그 形骸만 남긴 無用한 것이 眞 많이 있다。그 無用한 文字까지 練習을 시킬 必要가 어디 있는 것인가。

上述한 바와 같이, 反切 中心主義는 理論上으로 보든지, 實際적으로 보든지, 큰 缺陷이 있다。이 缺陷을 없애고, 한글의 學習을 便利케 하고, 綴字와 讀書의 能力을 增進케 함에는, 한글의 本質에 돌아와, 어디까지든지 字母를 中心으로 하야 取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字母中心主義를 提唱하는 所以가 實로 여기 있는 것이다。

### 三. 字母中心主義

字母를 中心으로 取扱한다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음에 具體적으로 이것

을 說明하려 한다。

그것은, 「가갸거겨…… 나냐너녀……」 등의 十四行 反切은 全然히 眼中에 두지 않고, 다만 다음의 十四字母만 가르키는 것이다。여기 한 말 하려는 것은, 從來의 一般 생각으로 하면, 字母가 子字 十四字, 母字 十一字, 合하여 二十五字다。그 中에서는 「ㄱ」은 이번 新綴字法에 依하여 廢止 되었으니까, 結局 二十四字이나, 나는 한글을 歸納的으로 取扱하려는 主旨로서, 所謂 重中聲이나 濃音 卽 짝소리나 다 한 字로 看做하야 教授함이, 가장 適當하다 생각하고, 다음의 四十字로 한 것이다。

#### 1. 母字……二十一字

ㅏ	ㅑ	ㅓ	ㅕ	ㅗ	ㅛ	ㅝ	ㅟ	}…基本母音			
ㅓ	ㅕ	ㅗ	ㅛ	ㅝ	ㅟ	ㅓ	ㅕ		}…合成母音		
나								가		거	기

#### 2. 子字……十九字

ㄱ	ㄴ	ㄷ	ㄹ	ㄷ	ㄷ	ㄷ	ㅅ	ㅅ	ㅎ	ㅇ	…基本子音
ㄱ		ㅓ		ㅓ	ㅓ	ㅓ					…濃音
ㄱ		ㄷ		ㅓ	ㅓ						…激音

이 四十字母를 充分히 兒童에게 理解시키도록 全力을 쓰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從來와 같이, 「가字」라든지 「노字」라든지 하야, 이것을 한 字로 가르키지도 않고, 「가字」라든지 「노字」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한다。어디까지든지 이것을 두字로 取扱하야, 「가」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그것은 「ㄱ」字에 「ㅏ」字를 씁니다』 한다든지, 「가」의 「ㅏ」나 「ㄱ」을 가르치고 『이 字는 무슨 字냐。』 『이 字는 무슨 字냐。』 하고 묻고, 「ㅏ」字라든지 「ㄱ」字라고 對答을 시키기로 하는데, 그 取扱法은 後節에 詳說코져 한다。

字母中心主義라 하면, 일듯 法則을 演

釋的으로 教授하는 것이 아닌가 疑心할지 모르나, 決코 演繹的으로 取扱하는 것이 아니다。終聲이 있든지 없든지, ㅈ ㅊ ㅋ ㆁ 等 合成母音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不拘하고, 이 四十字母를 中心으로 하여 充分히 反覆練習이 될 수 있게, 範語와 簡單한 文章을 豊富히 하여 써, 歸納的으로 그 法則이 理解되도록 하는 것이다。다만 四十字母뿐이니까, 假名보다도 그 字數가 적다。따라서 그 字母에 對한 反覆 練習의 度數가, 여간 激増될지 모른다。그 練習의 度數가 많으면 많으니만치, 그 字母의 讀破力 活用力에 熟達하여, 從來보다 훨씬 敏活하고 巧妙하게 또 正確하게 될 것은 明白한 일이다。이것은 十四行 反切表 따위가 없는 歐美各國의 小學校 成績이 證明하는 바이다。

從來 普通學校 一學年生에게, 이를더러 「기」를 쓰려고 하얏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라。반드시 「가갸거겨고교구규그。」 하고 입 속으로 외고나서, 비로소 「기」라고 쓰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써 보드라도, 그들의 腦裏에 字母는 없고, 단지 反切의 各字가 잇을뿐인 것을 可히 알 수 있지 않은가。그와 同時에, 그 活用力이 얼마나 拙劣遲鈍한가를 또 알 수 있지 않은가。그리고, 「이것은」이라 쓴 것을 「이거든」이라 읽으며, 「나을」「갸를」하고 씀은 비단 普通學校 生徒뿐이 아니다。이것을 생각하면, 누구나 다 이 字母中心主義를 反對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一年生에게 그러한 取扱을 하는 것은 도리어 어렵다고, 言下에 叱박을 주는 사람이 있다。그 無誠意함에 憤慨할뿐이지, 말할 價値도 없거니와, 또 이리케 말하는 이가 있다。

그 主義는 좋으나, 現수 教科書가 그리케 되지를 않았으니 할 수 없다고, 또는 總督府 方針에 抵觸되니 할 수 없다

고 한다。그 얼마나 因循姑息의인가。또 이리케 말하는 사람이 있다。알파베트는 字母가 個立하였으니 좋으나, 한글은 個立하지 않았으니 不便하다고。이것이야말로 틀린 생각이다。그 점은 도리어 한글이 便利한 편이다。왜 그러나 하면, 音節의 單位를 明示하니까지。

教科書가 音節文字化하여 되어서 참 不便은 하다。그러나, 音節文字로 取扱함이 不當한 以上, 이것을 잘 研究하여, 合理的으로 하여 나감이 우리의 職責이 아닌가。即 取扱者가 항상 字母에 中心을 두어 教授하고, 教科書에 新字라고 上欄에 揭示한 것은 特히 努力할 것이라는 限度로 取扱하면, 아무 相關이 없을 줄 생각한다。그리고, 이 主義로 하면, 卷一, 卷二에 各 五頁이나 되는 諺文表는 別로 必要한 것이 아니니까지, 아주 살적 取扱하여야 버리고, 그 대신 既習 字母에 依하여 各種 練習을 많이 함이, 더 以上 効果가 잇을 줄로 생각한다。要컨대, 教授者에게 이러한 생각만 잇으면, 充分히 教科書를 活用하여 兒童에게 理解시킬수 잇으리라 생각한다。故로, 다음에 字母中心主義로 取扱하는 實際案의 一端을, 參考로 提供코저 한다。

—(續)—

### ◎ 寄贈받은 雜誌

佛敎 (五月號)	佛敎社 發行
아이생활 (五月號)	아이생활社 發行
靑年 (五月號)	中央基督敎靑年會 發行
東光 (五月號)	東光社 發行
第一線 (六月號)	開闢社 發行
天道敎會月報 (五月號)	天道敎會月報社 發行
朝鮮語文學會報 (第四號)	朝鮮語文學會 發行

# 키히테의 言語觀(下)

金 善 琪

## 四. 三의 演譯에 依한 必然的 結果

『一 民族의 人文的 發達에 言語의 性質이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影響을 미치는가。言語는 各 個人이 思惟及 意慾함에 際하여, 그 情緒의 神秘的 深處에 이르기까지 參與하여, 혹은 이것을 制限하고, 혹은 날개를 주어,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의 全體를, 自己의 領域 안에 두고, 唯一 共通한 理解로서 結合하여, 感覺世界와 世界와의 交流點이 되고, 世界의 두 끝을 密接히 融合하여, 어느 世界에 屬한 것임을 말할 수가 없게 하는 것이니, 만약 甲乙 兩語의 關係가 生과 死의 關係라 하면, 그 結果가 얼마나 클 것은 推測하기 어렵지 않다。生命 있는 民族과 그러치 아니한 民族의 根本的 差異를 一括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다。』 그가 말한 것을 줄여 적어 보면,

第一 生命 있는 말을 가진 民族에 있어서, 그 精神的 發達이 바로 生命에 作用한다。反對의 境遇에는 精神的 發達과 生命과 沒交涉이다。……이 命題의 意味를 잘게 說明할 必要가 있다。精神的 發達이 生命에 作用한다 함은, 根源的 生命 및 이 生命 精神的 生命의 原, 곧 神으로 부터 간단없이 흘러나옴, 사람이 제 原形에 갈게 自己를 끊임없이 蔓들어감, 곧 한 새로운 從來에 없든 生命을 蔓들을 意味함이고, 決코 生命의 狀態를 現在狀態대로 維持하고, 그 墮落을 막는 意味가 아니다。덕구나 一般의 發達에 뒤진 特殊

한 個人의 救濟를 意味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다음에 精神的 發達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오로지 哲學으로 解釋할 것이다。何故노 하면, 精神 生命의 永遠한 原形을 科學的으로 押捉하는 것은 곧 哲學인 까닭이다。이 哲學 및 哲學에 터를 둔 科學은, 生命 있는 산 말을 가진 民族에 있어서, 그 生命의 속에 흘러들어 갈수 있다는 것이, 우의 命題의 뜻이다。이와 같이, 산 思想作用은 한 살아 움직이는 言語로써 思惟를 表現하므로 因하여, 두드러지게 쉬워지고, 만약 그 思惟가 相當히 힘차고 깊은 것이면, 다시 必然的인 것이 된다。산 말은 그 自身이 곧 生命이요, 또한 感覺的의 것이어서, 도리켜 自己 自身의 全 生命을 描寫하고, 抱持하고, 또 이것에 作用한다。이러한 말을 가진 境遇에는 心靈이 바로 言語를 向하여 말하고, 言語에 自己를 啓示함이,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보임과 같다。이에 反하여, 죽은 國語는 直接 아무 것도 刺戟하지 못한다。따라서, 산 哲學을 가지지 못한다。그러나, 산 말을 가진 民族의 精神 發達은, 이미 思惟者의 生命이다。그래서, 이 生命은 必然的으로 自己 以外의 生命, 따라서 現存한 一般 生命 속에 흘러들어가, 이것을 同化 하려고 애를 쓴다。何故노 하면, 그의 思惟가 一種의 生命으로 사람에게 生氣를 주며, 사람은 淨化하여 또한 救濟하는 힘을 보고, 그 思惟者는 衷心으로 快感을 느낀다。

그런데, 個個의 生命에서 시작하여, 一



般的生命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 가운데에 가장 卓越한 者는 詩作이다。곧 詩는 一民族의 精神 發達의 哲學 다음에 가는 第二의 大部門이다。그리고, 詩는 山 말을 通하여 限없이 또한 永遠히 새롭고, 新鮮하게 하는 能力을 가진 것이다。그러므로, 山 言語에 있어서의 즐기찬 思惟가 詩人的 感興의 새 脈管을 연다。이러하여, 詩는 새로 얻은 精神的 發達은 一般의 生命 속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가장 뛰어난 手段이 되는 것이다。죽은 國語는 이와 같이 崇高한 意味의 詩는 決코 가질 수가 없다。

第二 結果, 第一의 理由에 依하여, 第一種의 國民에 있어서의, 精神的 發達이 극히 根本的이요, 重大한 事實이다。따라서, 이런 民族은 精神的 發達이 生命에 作用함을 冀求한다。이와 反對로 第二種의 民族은 精神的 發達이 一種 天才的 遊戲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다지 意慾지 아니 한다。그래서, 第二種의 國民은 智를 가졌을뿐이요, 第二種의 民族은 智 밖에 또한 情을 가졌다。

第三 結果, 第二의 結果로 第一種의 民族은 正直하고, 부지런하고 嚴肅히 努力한다。그러나, 第二種의 國民은 自己의 幸福은 自然에 맡기어 되는대로 산다。山 말을 가진 民族에 있어서의, 그 研究가 研究 自體에 依하여 滿足을 얻을 生活의 欲求에서 온 것이니까, 따라서, 生活 그것이 包含한 모든 세찬 衝動을 준다。그러나, 죽은 말을 가진 民族에 있어서의, 研究는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方法에 依하여 지내려는 欲望뿐이니까, 이 目的만 達하면 그만이다。그러니까, 勤勉과 嚴肅이 不足하다。山 말을 가진 民族은 따라서 높은 階級の 修養을 할 수 있으나, 生命을 잃은 말을 가진 民族은 到底히 그러하지 못하

다。

죽은 말에는 語彙數가 一定하여, 綜合 排列하여, 쓸 可能性이 차차로 없어져간다。이 까닭으로, 이러한 말 가운데서, 生活하면, 이미 이루어진 말을 말하지 아니 하면 아니 된다。그러하여, 한번 이것을 배운 뒤에는, 言語는 그를 대신하여 그의 입을 빌어 말하고, 그의 대신 思惟하고, 또한 詩作을 한다。山 말에 있어서의, 이에 反하여 그 말 가운데 實際로 生活하기만 하면, 語彙가 더욱더욱 늘고 붙고, 뜻도 늘 바뀌어 간다。새로운 綜合 排列이 可能하게 된다。끊임 없이 進歩하는 말은 사람 대신 말하는 일이 없다。이와 反對로 言語를 使用하려는 사람이 自己의 方法에 依하여, 또한 創造的으로 自己 需要에 充하려고, 言語를 쓰게만 된다。故로, 山 말을 가진 民族이 企圖하는 研究는 自 精神的 自然 속에서 모든 概念이 흘러 나오는 그 뿌리 속까지 거실러 간다。이와 反對로, 死語의 民族은 다만 他人의 概念을 研究하여, 이것을 理解하려고 할뿐이어서, 實際에 있어서의, 前者는 實로 哲學의 입에 反하여, 다만 歷史的이요 註釋的에 지나지 아니 한다。그러므로, 根本的 努力은 할 수가 없다。

第四 結果, 또한 第一 結果의 必然的 結果로 죽은 生命을 잃은 言語의 民族은 精神的 敎化와 生活이 沒交涉하므로 그 自然한 結果는 이 民族 가운데 精神的 敎化를 받을 機會를 가지지 못한 階級은 教育 階級에 比하여 훨씬 뒤떨어진다。그래서, 精神力은 勿論, 家門도 教育 階級과 全然 다른 別種의 人種 같이 본다。이를 좇아 教育 階級은 그들에게 秋毫도 同情이 없고, 그들은 根本的으로 돕겠다는 衝動도 느끼지 않고, 다만 할 수 없는 種族 같이 생각하여, 그들은 教育 階級에게 利用

이나 받게 된 것으로 보니까, 차라리 그들 利用치 아니 함이 損이라고 생각한다. 言語가 生命을 잃은 初期에 있어서, 一種의 博愛의 精神에 依하거나, 上流階級の 自己 主張이 그다지 甚하지 아니한 동안은, 이를 緩和할 수가 있다. 그러나, 때가 옮음을 따라, 우에 말한 一般 平民에 對한 輕蔑이 露骨化하고 殘酷해진다. 말하자면, 一種 不幸한 階級的 對立을 意味한다.

### 五. 맺 음 말

以上에서 피히레의 熱辯을 들으며, 心眼을 우러 民族에게 向하여 살피면, 소름이 끼칠 事實이 많다. 우리는 과연 五千

…(53頁에서繼續)… 例하면,

『그리고 나서……』 할 것을

『그리고 나서……』하면 아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러면』도 이와 같고, 『그러므로, 그러므로』도 이와 같은 것이다.

### 七. 에 와 에게

補足關係吐 에, 에게들을 흔히 規則 없이 쓰는 이가 있다. 더욱이 新聞紙 第一面 記事를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히는 일이 있으니, 그들은 일본글 「に」를 그대로 「에」로만 번역해 놓아서, 조선글을 막 잡아놓는다.

「に」는 無感覺한 相對方에나 有感覺한 相對方에나 그대로 通用하여,

『家に(或은 へ)手紙を出す。弟に手紙を出す。』이러케 쓴다. 그러나, 조선말에는 그러치 않다. 無感覺한 相對方에는 『에』를 쓰고, 有感覺한 相對方에는 『에게』를 쓴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말 格으로 『에』로만 通用하여,

年의 長久한 文化生活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犯한 過誤로 因하여, 民族 固有의 哲學은 가지지 못 하였다. 곧 創造的 努力이 不足했다. 生에 對한 眞摯하고 嚴肅한 態度를 가지지 못한 것이 否認치 못할 事實이었다. 또한 漢文字나 읽은 이들은 一般 民衆의 利益과 相反한 地位에 서려고 하였다. 또한 늘 自我에 對한 自覺이 不足하므로 부러 여러 가지 過誤를 犯하였다. 나는 이 글을 마치며,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民族의 文化的 生命에 對하여, 많은 自覺이 잇기를 바라며, 우리의 外的 環境에 徹底한 認識을 가지자는 것이다. (끝)

『아우에 편지를 부친다。』이러케 쓴다면, 글뜻이 全然 바뀌어서,

『아우의 편지를 부친다。』로 誤解하기 쉬운 것이다.

### 八. 主格吐의 줄임

조선말은 用言 即 形, 動詞 우에 잇는 主格, 客格 所有格吐들은 줄이어서,

『달이 밝다。닭이 운다。달을 본다。아우의 집』들을

『달밝다。닭운다。달본다。아우집』이러케 쓸 수가 있으나, 體言 即 名詞 우에 잇는 主格吐만은 絶對로 줄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우가 집으로 돌아간다。』이러케 쓸 글을, 『弟家に歸る』를 그대로 본받아,

『아우 집으로 돌아간다。』와 같은 格으로 쓰는 것은 크게 잘못할이다. 이것은 『아우의 집으로……』하는 뜻으로 變하는 것이다.

# 日本の常用漢字

漢字가 우리에게 잊어, 많은 拘束을 주며 弊害를 끼쳐 옴은, 一般이 이미 싫증이 날만큼 느끼어 다 잘 아는 배며, 따라서, 이 漢字의 制限 또는 全廢에 對하여서까지, 말서 우리에게도 輿論化한 것이니, 지금에 새삼스리 贅說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 制限說이나 全廢說이 아직 完全한 아무 아귀를 짓지 못한 以上엔, 우리는 이에 對하여, 無關心한 態度는 勿論 가질 수 없는 것이 事實이다。

漢字는 그의 原產地인 中國에 있어서도, 이미 廢止論이 일어나, 注音字母란 새 文字가 생긴 것이다。日本에서는 常用 漢字를 制限하여, 지금 實行하여 오는 中이다。그리고, 朝鮮에 있어서는 아직 이에 對한 具體案이 없었으나, 完全한 語文의 整理가 되기 前에는, 全廢는 못할 것이다。그러나, 前說한 바와 같이, 이에 對하여, 無關心하고 지날 수는 없으리니, 將來의 全廢를 前提로 한 應急的 臨時 制限이라도 하여야 할 것일새, 于先 그 參考로, 日本 國語調査會에서 決定하여 方今 實行 中에 있는, 常用 漢字를 紹介해보고저 한다。

國語調査會에서 決定한 常用 漢字는 모두 一千 九百 六十三 字로, 그것을 들면 아래와 같다。

- 【一】 一 丁 七 丈 三 上 下 不 世 丙 並
- 【丨】 中
- 【丶】 丸 主
- 【ノ】 久 乏 乘
- 【乙】 乙 九 乞 也 乳 亂
- 【丨】 了 事
- 【二】 二 云 互 五 井
- 【一】 亡 交 京 亭

- 【人】 人 仁 仇 今 介 仕 他 付 仙 代 令 以 仰 仲 件 任 企 伊 伏 伐 休 伯 伴 伺 似 但 位 低 依 住 佐 何 余 佛 作 使 來 例 侍 供 倚 侮 侯 侵 便 係 促 俊 俗 保 俠 信 修 俳 俵 俸 併 倉 個 倍 倒 候 借 倫 假 偉 偏 停 健 側 偶 傍 傑 備 催 働 傳 債 傷 傾 僅 像 僚 僞 僧 價 儀 億 儉 儒 償 優
- 【儿】 元 兄 充 兆 兇 先 光 兪 免 兒 兔
- 【入】 入 內 全 兩
- 【八】 八 公 六 共 兵 具 典 兼
- 【冂】 冊 再
- 【冫】 冠
- 【冫】 冬 冷 涼 准 凌 凍 凝
- 【儿】 凡
- 【凵】 凶 凸 凹 出
- 【刀】 刃 及 分 切 刈 刊 刑 列 初 判 別 利 到 制 刷 券 刺 刻 則 削 前 剛 副 割 創 劊 劍 齊
- 【力】 力 功 加 劣 助 努 勃 勅 勇 勉 動 勸 務 勝 勞 募 勢 勤 勳 勵 勸
- 【勹】 勺 勿 包
- 【匕】 化 北
- 【匚】 匹 區
- 【十】 十 千 升 午 半 卑 卒 卓 協 南 博
- 【卜】 占
- 【卩】 印 危 却 卵 卷 卽 卿
- 【厂】 厄 厘 厚 原
- 【厶】 去 參
- 【又】 及 友 又 叔 取 受 叛
- 【口】 口 古 句 叫 召 可 叱 史 右 司 各 合 吉 同 名 后 吏 吐 向 君 吞 吟 否 含 呈 吸 吹 告 周 味 呼 命 和 咽 哀 品 員 哲 唐 唱 商 問 啓 善 喉 喜 喪 單 嗣 嘉 嘗 器 噴 嚴 囑
- 【囗】 囚 四 回 因 困 固 國 園 圓 圍 圖 團
- 【土】 土 在 地 坂 均 坊 坐 坑 坪 垂 型 垣 埋 城 域 執 塔 基 堀 堂 堅 堤 堪 報 場 培 塗 塚 塞 塵 境 墓 塚 增 墨 墮 壁 壇 壓 壤 壤
- 【士】 士 壯 壹 壽
- 【久】 夏
- 【夕】 夕 外 多 夜 夢
- 【大】 大 天 太 夫 央 失 奇 奉 奏 契 奔 奢 奧 奪 獎
- 【女】 女 奴 好 如 妃 姪 妙 妨 妹 妻 妾 姉 始 姑 姓 委 姦 姪 姬 姻 姿 威 娘 娛 娠 婚 婦 媾 媒 嫁 嫉 嫡 嫌 孃

【子】 子字存孝季孤孫學  
 【宀】 宅宇守安完宗官定宛宜客宣室宮宰害  
 宴家容宿寄密富寒察寡寢實審寫寬寶  
 【寸】 寸寺封射將專尉尊尋對導  
 【小】 小少尙  
 【尢】 就  
 【尸】 尺尼尾尿局居屈屋展層履屬  
 【山】 山岡岩岬岳岸峙峰島峽崇崎崩嶮  
 【川】 川州巡巢  
 【工】 工左巧巨差  
 【己】 己  
 【巾】 市布帆希帖帝帥師席帳帶常帽幅幕幣  
 【干】 干平年幸幹  
 【幺】 幻幼幾  
 【广】 床序底店府度座庫庭庶康廉廓廟廢廣  
 廳  
 【廾】 廷延建迴  
 【卅】 弄弊 【弋】 式  
 【弓】 弓弔引弘弟弱張強彈  
 【彡】 形彩彫影  
 【彳】 役彼往征待律後徐徑徒得從御復循徵  
 徵德徹  
 【心】 心必忌忍志忙忘忠快念忽怒思怠愈急  
 性怨怪怯恐恥恨恩恭息悅悔悟懇悲悼情感惜  
 憐惠惡情惱思愁愉意愚愛感慈態慕慘慢慣慨  
 慮慰慶慾憂憚憲憶憾憤懇應懲懷懸戀  
 【戈】 成我戒戚戰戲戴  
 【戶】 戶戾房所  
 【手】 手才打托扱扶批承技抑投抗折抱抵提  
 抽拂拍拒拓扱拘拙招拜拈拳拾持指押捌捕援  
 捧捨掃授掌排掘挂探控探推接派揚換握揭揮  
 損搖搜摘携摩撫擇擊操擔據擬擴攝  
 【支】 支  
 【攴】 收改攻放政故效敍教敏救敗敢散敬敵  
 敷數整  
 【文】 文  
 【斗】 斗料斜  
 【斤】 斤斥斬新斷  
 【方】 方施旋旅族旗

【无】 既  
 【日】 日旦旨早旬旭昇昌明易昔星春昨是時  
 晚晝普景晴晶智暇暖暗暑暮暴曆曇曜  
 【曰】 曲更書曹曾替最會  
 【月】 月有朋服朕朗望朝期  
 【木】 木未末本札朱机朽杉李材村杖束柿杯  
 東松板枕林枚果枝枯架柄某染柔查樞柱柳栗  
 稜株根格栽桃案桐桑桶梅條梨梯械棄棋棒棚  
 棟森棺植楠業極榮構概樂棲標榼樓樞模樣樹  
 橋機橫檄檜檢櫻欄權  
 【欠】 次欲歎欺歌歎歐歡  
 【止】 止正此步武歲歷歸  
 【歹】 死歿殊殉殖殘  
 【殳】 段殺殼殿毀  
 【毋】 毋每毒  
 【比】 比  
 【毛】 毛毫  
 【氏】 氏民  
 【气】 氣  
 【水】 水水永汁汲求汗汚江池決汽沈沒洩沖  
 沙河沸油治沿沼況泉泊法波泣泥注泰泳洋洗  
 津洪洲活派流浦浪浮浴海浸消涉液淑淚淡淨  
 滌深混清淺添減渡温測港渴游湖湧湯源準溝  
 溢溶溺滅滋滑滯滴滿漁漂漆漏演漕漠漢漫漸  
 潔潛潮澤激濁濃濕濟濫濱瀧灌灣  
 【火】 火灰炎炎炊炭烈烏無炤然煉煎煮煙煤  
 照煩熊熟熱燃燈燒營燭燻爆爐  
 【爪】 爪爭爲爵  
 【父】 父  
 【片】 片版牌牒  
 【牙】 牙  
 【牛】 牛牧物牲特犧  
 【犬】 犬犯狀狂狐狩狹狼猛貓猶猿獄獨獲獵  
 獸獻  
 【玄】 玄率牽  
 【玉】 玉王玩珍珠班現球理琴  
 【瓜】 瓜  
 【瓦】 瓦瓶  
 【甘】 甘甚

【生】 生產甥  
 【用】 用  
 【田】 田由甲申男町界畏畑畔畜畝略番畫異  
 留當壘  
 【疋】 疋疎疏疑  
 【疒】 疫疲疾病症痘痕痛痢療  
 【爻】 登發  
 【白】 白百的皆皇  
 【皮】 皮  
 【皿】 皿盆益盛盜盟盡監盤  
 【目】 目盲直相省眉看真眠眺眼着睡督睦瞭  
 【矢】 矢矧知短  
 【石】 石砂砲破研硬硯碁碎碑確磁磨礎  
 【示】 示社祈祕祖祝神稟祭禁禍福禦禮  
 【禾】 秀私秋科秒秤租秩移稅程稚種稱稻稼  
 稿穀積穗穩  
 【穴】 穴空究穿突窵窵窟窟窻窮  
 【立】 立章童端競  
 【竹】 竹竿笑笛笠符第筆等筋箒答策箇算管  
 篇範節箱築篤簡簿籍  
 【米】 米粉粒粘粗粹粟精糖糞  
 【糸】 系紀約紅紋納純紗紙級紛素紡細索紫  
 纁紳紹紺終組結絕綾絳給統絲絹經綠維綱網  
 綴綻綿緊緒線緝緣編緩緯練縛縣縫縮縱總績  
 繁織繕繪繭綠繼纂績  
 【缶】 缺  
 【罔】 罪置署罰畏罵罷羅  
 【羊】 羊美群義  
 【羽】 羽翁翌習翼  
 【老】 老考者  
 【而】 耐  
 【耒】 耕  
 【耳】 耳耽聾聘聞聯聲職聽  
 【肉】 肉肋肖肝股肥肩肯育肴肺胃背胎胞胴  
 胸能脂脇脈脊脚脫腎腐腕腦腰腸腹腺膏膚膜  
 膝膳膽臆臟  
 【臣】 臣臥臨  
 【自】 自臭  
 【至】 至致臺

【白】 白與舅與舉舊  
 【舌】 舌舍  
 【舛】 舞  
 【舟】 舟般航舵舶船艇艘艦  
 【艮】 良  
 【色】 色  
 【艸】 芋芝花芽芳苑苗若苦英茂茶草荒荷莊  
 莖菊菌菓菜華萩萬落葉著葬蒔蒙蒸蓄蓮蔭薄  
 薦薪藍藏藝藤藥蕪  
 【虍】 虎虐處虛虜虞號  
 【虫】 蚊蛇蛙蜂蜜融蟲蠻蠶  
 【血】 血衆  
 【行】 行術街衝衡衛  
 【衣】 衣表袞袂袋袖被袴裁裂裏裕補裝裸製  
 複褻  
 【西】 西腰覆  
 【見】 見規視親覺覽觀  
 【角】 角解觸  
 【言】 言訂計討訓託記訟訪設許訴診詐詔諂  
 評詞詠詣試詰詩話詳誅誇誌認誓誕變誘語誠  
 誤誦說課誼調談請諒論諫諭諸諾謀謁謂謙講  
 謝謠謹證識譜譯警護讀讓  
 【谷】 谷  
 【豆】 豆豐  
 【豕】 豚象豪豫  
 【貝】 貝財貞負貢貧貨販貫責貯貳貴買貨費  
 賀賀貨賄資賤賑賓賜賞賈賤賦質賴購贈贊  
 【赤】 赤赦  
 【走】 走赴起超越趣  
 【足】 足距跡路踊踏躡躡躡  
 【身】 身  
 【車】 軌車軍軒軟輻較載輔輕輝輦輪輸輿轉  
 【辛】 辛辨辭辯  
 【辰】 辰農  
 【辵】 込辻迎近返迫迭述迷迫退送逃逆透逐  
 途通速造逢連週進逸遂遇遊運過道達遠遙  
 遞遣遺適遭遲遷選避還邊  
 【邑】 那邦邪邸邱郊郎郡部郵都鄉  
 【酉】 酌配酒酢酬酷酸醉醜醫

- 【采】 釋
- 【里】 里重野量
- 【金】 金釜釘針鈞鈍鉛鉛鉢銀銃銅銘銳鋒錄  
鋼錢錦鍋鍍鍊鎖鏡鑄鐘鐵鑑鑛
- 【長】 長
- 【門】 門閉開閨閑間閣闕關
- 【阜】 防附降隈阪陞院除陪陣陳陰陵陶陷陸  
陽隅隆隊階隔隙際障隣險隱
- 【隹】 隻雀雄雅集雇雌雙雜離難
- 【雨】 雨雪雲零雷電需震霜霞霧露靈
- 【青】 青靜
- 【非】 非
- 【面】 面
- 【革】 革靴鞍
- 【音】 音響
- 【頁】 頂頰項順須頓預頤頃領頭頻題額顏願  
顛類顧顯
- 【風】 風
- 【飛】 飛翻
- 【食】 食飢飲飯飾養餓餘餅館饅
- 【首】 首
- 【香】 香
- 【馬】 馬馳駁馱駐騎騰騷驅驕驗驚驟驛
- 【骨】 骨髓體
- 【高】 高
- 【鬼】 鬼魂魔
- 【彡】 髮
- 【鬥】 鬪
- 【魚】 魚鮮鯉鯛鯉
- 【鳥】 鳥鳩鳴鶴鷄
- 【鹵】 鹽
- 【鹿】 鹿麗
- 【麥】 麥
- 【麻】 麻
- 【黃】 黃
- 【黑】 黑墨點黨
- 【鼓】 鼓
- 【鼠】 鼠
- 【鼻】 鼻

【齊】 齊齋

【齒】 齒齡

【龍】 龍

【龜】 龜

(注意) 1. 本表 밖의 漢字는 假名으로 쓸 일。 2. 固有名詞에는 本表 밖의 文字를 쓸 도 無妨하다。 但, 外國(支那를 除하 고)의 人名, 地名은 假名으로 쓸 일。 3. 代名詞, 副詞, 接續詞, 感動詞 助動詞 及 助字는 필수 잇는대로 假名으로 쓸 일。 4. 外來語는 假名으로 쓸 일。

### 協定補足文字

(78字, 各 新聞社에서 協定)

劾妥撒潰脊值襲麴乾伸冒剩卽喚寧真荒繫轄  
匠塊屑佳墜尻悶憇暫瀆癖籤粧糧羈該踏賠偵  
剖最澁僕吳喫妓搬裾賭輻詞綺尤拾殆烏蓋阪  
阿壘撲頰冗映藩閥亞又唯奈斯枵茨匿之疏

### 常用漢字의 削減과 增補

처음에 發表한 常用漢字는 以上에 말한 바와 같이 1963字였는데, 그 뒤에 時勢의 變遷을 따라, 그의 添削의 必要를 認定케 되어, 그 中에서 147字를 削減하고, 45字를 補增하여 現在 使用되는 것은 1861字니, 아래의 積음과 같다。

1. 常用漢字表에서 削減해낸것。

云仙企但儒兎冠凝凸凹刈勺夕匹卿叛叱吞嘗  
坐垣塚妾嫉宇宛宰寡岬嶮帖廟弘循忽悅戚托  
捌掘效李杖桶梯棚槌檜歿殼毫洲游溝漕濫灌  
烏焰煎煤熊燭牒狐狼猿瓜畔疏痕眺睦際秤稼  
穿笠箇篇粟紗絞纂耽聘肋肯肴脂脇腎腺膏膳  
白舅艇芋莖荻蒔蓮蔭薦薪藍蕪虜袂袴詣誅誦  
誼諒諫謂謙貢賑赦路蹟蹴輔輝辻逢那釘錦銀  
鎌閏隅霞鞍頃須頰饅驕鯉鼠齊 (以上147字)

2. 새로 常用漢字에 補增한 것。

之亦伸佳俱克其冗剩厥威唯喫壤妥媚宏彰悖  
惟慎扇披撒插斯映昭汰淵爾環癖肅肇脊膺璽  
襲謬謔輯遵錯餐 (以上 45字)

## 質 疑 解 答

【問一】 貴會에서 철자에 관한 통일안 초고가 벌써 작성되었다 하는데, 그것을 貴會員끼리만 討議하여서 決定할 것입니까, 或은 일반에게 발표하여서, 일반 사회의 의견도 들으려 합니까?。

【問二】 「不能」을 意味할 때에, 貴紙에 서는 貴紙뿐 아니라, 斯界의 大家들이 쓰시는, 글월 中에는, 大部分이—— 「못한다」라고 쓸뿐 아니라, 얼마 前에 東亞日報 한글質疑欄에서도, 누가 質問한대 對하여서, 李允宰氏의 答이, 「못」字를 쓰면, 「잘못」이라 할 때에, 글자와 소리가 맞지 아니하므로, 「못」字를 써야 된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못」字를 써서 옳은 경우는 「잘못」이라 하는 一例뿐이고 (또 있을지도 모르나, 愚考에는 그렇습니다。), 「못」字를 써야 옳은 경우는 꼭 많은듯 합니다。 보기를 들면, 「못온다(不來)」를 「못온다」로 써서는 不合理的하고, 「못알아맞힌다」를 「못알아맞힌다」로 써서는 不合理的하고, 「못외운다」를 「못외운다」로 써서는 音理에 不합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잘못」은 名詞고, 「못온다」의 「못」은 副詞인데, 名詞 때에 「못」字를 쓴다고, 副詞 때에도, 音理에 不합한 것도 不拘하고, 「못」字를 써야 된다는 理論은 아무리하여도 首肯하기 어려운데, 무슨 다른 理論이나 說明이 있습니까。

【問三】 貴紙 創刊號 첫머리에, 崔鉉培氏가 씨가름의 보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三千里」를 셋으로 놓아서, 「三」을 셋씨, 「千」을 셋씨, 「里」를 이름씨, 라고 하고, 그 다음에서는 「三十」을 하나로 본 것은

무슨 理由입니까? 「三千」이 둘 될 것이면, 「三十」도 둘이라야 옳고, 「三十」이 하나 될 것이면, 「三千」도 하나로 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一, 二, 三을 各々 독립한 數詞로 본다면, 「三萬五千六百七十八」도 독립한 數詞 하나로 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또, 二歲, 五歲의 二와 五를 셋씨로 보고, 네살, 다섯살의 「네」과 「다섯」을 어떻게 본 것은, 무슨 理由입니까? 또, 「七十단」의 「七十」은 셋씨라 하고, 「한단」 「두단」의 「한」 「두」는 어떻게 본 것은 무슨 理由입니까。

(東萊 일사생)

【問一의 答】 朝鮮語學會에서 그제 制定中에 있는 綴字法 統一案은 아직 작성되지 아니하였습니다。 本會에서 現時 極度로 混亂에 빠진 綴字法을 整理하기 위하여, 委員 몇 사람을 내어, 昨年 一月부터 거의 半年동안 前後 數十回의 審査討議가 있었는바, 대략 原案의 草稿만을 作成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不備한 點이 많으므로, 아직 會에 내놓지 못하고, 요새도 委員들이 모이어서 審議를 繼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마친 뒤에는 먼저 會에 提出하여 다시 討議가 있겠으며, 그러한 뒤에는, 또 一般에게 發表하며, 各方面의 意見을 들어서, 가장 完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一般이 使用할 綴字를 어찌 한 사람의 執着으로 거연히 작성할 수 있으리까。 매우 慎重히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렇게 節次를 밟으려 하는 것입니다。(李允宰)

【問二의 答】 당신의 물으신 뜻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러나, 「못한다」가 「못한다=모한다」로 發音된다 하야, 「못」을 「못」으로 쓴다면, 「옷한벌(衣一襲)」이 「옷한벌=오한벌」로, 「빗한개(櫛一個)」가 「빌한개=비한개」로

「엷한가락(飴한가락)」이 「열한가락=여한가락」으로,  
 「그런짓하지말라」가 「그런질하지마라」로,  
 發音된다 하여, 다른 경우에는 모두,  
 「웃이, 웃에, 웃으로, 웃을」 「빚이, 빚이로,……」 「엷이, 엷을,……」 「짓이, 짓을, 짓으로,……」로 쓰면서, 이 경우에만 「을, 빌, 열, 질」으로 쓰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못한다=물한다」로 發音된 데서 「못」을 「물」으로는 써서 안될 것입니다. 다만 「못」의 「ㅍ」이 「ㄷ」으로 變發되는 音理的 理由는 이러합니다. 「ㅍ」은 혀끝같이소리요, 「ㄷ」은 혀끝해치소리인데, 같은 자리에서 「ㅍ」은 혀끝을 웃니몸에 살짝 닿이고 내쉬는 숨으로 그 사이를 갈아서(磨擦하야) 내고, 「ㄷ」은 혀끝을 또한 웃니몸에 아주 닿이어 막고 내쉬는 숨으로 그것을 해쳐서 내는 소리입니다. 그러코 보니, 「ㅍ」과 「ㄷ」과의 發音法의 差異는 단지 혀끝을 웃니몸에 아주 닿이고 아주 안 닿임이 있을뿐입니다. 그런데, 「ㅍ」이 모든 닿소리(但, 輕喉音은 빼고)와 만날 때에는, 그 만나는 다른 닿소리의 發音을 爲하여서의 準備的 聯鎖作用으로, 웃니몸에 살짝 닿았든 혀끝이 아주 닿아버리게 되어서, 제절로 「ㄷ」의 發音法을 襲踏케 됩니다. 그래서, 「ㅍ」이 「ㄷ」으로 變發케 되는 것입니다. 「하얏다」가 「하얄다」로, 「솟구고」가 「숏구고」로 될도 마찬가지로 理致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못온다」가 「물온다」로,  
 「못외운다」가 「물외운다」로,  
 「못아라맛친다」가 「물알아맛친다」로 發音된다 하여, 「못」을 「물」으로 表記해야 옳다면,  
 「웃안(衣內)」이 「을안」으로,  
 「훗웃(單衣)」이 「홀웃」으로,

「빚아니가지고(不持櫛而)」가 「빌아니가지고」로,

「жат알(栢粒)」이 「잠알」로 發音된다 하여, 「웃, 훗, 빚, 잣」들도 「을, 홀, 빌, 잠」들로 쓰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

「웃, 훗, 빚, 잣」들은 「이, 에, 을, 으로」들과 같은 토씨(吐詞)를 만날 때에는 그 닿소리 「ㅍ」의 音이 다 제대로 나지만, 「안, 웃, 야니, 알」들과 같은 意味를 가진 實詞를 만날 때에는, 그 實詞들의 音價를 保存키 爲하여, 곧 「ㅍ」의 소리가 그 아레엿 實詞의 音價에 큰 影響을 끼치지 않게하기 爲하여, 어디까지나 「ㅍ」의 音價를 남구려 듭니다. 그러하는 곁에 「ㅍ」을 내기 爲하여, 準備하고 잇든 혀끝이 곧 웃니몸에 살짝 닿엿든 혀끝이 어느 틈에 아주 올라붙어서, 「ㄷ」의 소리로 變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實詞들의 音價를 保存시키지 않고, 「ㅍ」의 音을 完全히 낸다면,

「웃안」은 「오산」으로,  
 「훗웃」은 「호솫」으로,  
 「빚아니가지고」는, 「비사니가지고」로,  
 「훗웃안(單衣內)」은 「호소산」으로,  
 「жат알」은 「자살」로 發音되어, 到底히 그 實詞들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것은 「ㅍ」뿐만 아니라 「ㅍ, ㅌ, ㄷ」들도 그러하니, 보기를 들면,  
 「젓안먹고」를 「절안먹고」로,  
 「꽂아니종을시키고」를 「핀아니종을시키고」로,  
 「솫안」을 「숏안」으로 音讀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물으신 바 「못」에 있어서도, 「잘못이, 잘못을, 잘못으로, 잘못에」할 때에는, 「이, 을, 으로, 에」들은 뜻을 가진 實詞가 아니므로, 그 音價를 굳이 保存할



必要가 없을뿐 아니라, 그보다도 우에 있는 「잘못」이란 實詞의 音價를 保存할 必要가 더 많으므로, 「못」의 「ㅅ」을 제대로 發音하야, 말의 元體를 그대로 들어내는 것이요,

「못온다, 못알아맞힌다, 못외운다」들에 있어서는, 「온다, 알아맞힌다, 외운다」들이 다 實詞므로 그 語體의 그 音價를 保存키 爲하야, 앞에 말한 바와 같이, 「ㅅ」이 「ㄷ」으로 變發되는 것입니다。이 實詞의 音價의 保存의 觀念은 慶尙道 地方에 더욱 強하니, 거기 사람들은 「못한다」의 「한다」가 「한다」로 되는 것까지 꺼리어, 「못한다」를 「몬한다, 모한다」로 發音하야 「못」의 「ㅅ」을 「ㄴ」으로 바꾸게 하기도 하고, 또는, 「ㅅ」을 아주 아녀 내어, 「못」을 「모」로 읽기도 합니다。그러므로, 만일 極端의 標音的 表記法으로 나간다면, 「잘못」이라 할 경우에는 「못」으로 쓰고, 「못온다」할 경우에는 「몬」으로 쓰고, 「못모인다, 못나온다」할 경우에는 「몬」으로 쓰고,

「못한다」할 경우에는 「몬, 몬, 모」로 써야 할지니 同一한, 意味의 否定副詞인 「못」을 서너넉넉 가지로 쓰게 되어, 單語綴의 表意化에 立脚한 우리 文字 改正의 根本理論에 크게 어긋아지는 同時에, 實際 敎育上 또는 學習上에 語根的 說明과 綜合 聯絡的 概念에 莫大한 不便을 줄 것입니다。

또, 당신은, 「잘못」은 名詞요, 「못온다」의 「몬」은 副詞므로, 「못」「몬」으로 區別해 썼으면 좋겠다는 듯한 뜻을 보이셨으나, 만일, 名詞인 「잘못의」「못」과 副詞로 쓰인 「못온다」의 「못」이 元來에 同一한 意味를 가진 異種 語源의 것이라면, 勿論, 問題없이 그러케 써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本來 「잘못」이란 名詞는, 副詞 「잘

파 副詞 「못」과 動詞 「하다」와 「副+副+動=動」의 形式으로 이룬 合成動詞 「잘못하다」에서 動詞 「하다」가 줄고, 「잘못」만 남아서 된 變成名詞인즉, 語源으로 보나 實際의 意味로 보나, 「잘못」의 「못」과 「못온다」의 「못」은 똑같은 同一한 말입니다。그러므로, 우에서 한 모든 말슴과 같이, 「못, 몬」의 둘로 區別해 쓰셔도 옳지 않고 「몬」으로 써도 옳지 않고, 반드시 「못」으로 써야만 옳습니다。

(李 鉞)

【問三의答】 (1). 셈씨의 單位를 어떻게 잡는 것이 옳을까?

(7). 순전한 朝鮮말로 된 것을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는 :勿論이요, 열, 수물, 설흔, 마흔……백이 각각 한 씨를 이룬 것은 分明한 것이외다。

(2). 漢字로 된 말은 一, 二, 三,……十, 百, 千, 萬이 各各 한 낱말인 것도 分明합니다。問題는 二十, 三十, 二百, 三百, 四百, 五千, 六千, 七萬, 八萬의 따위가 한 낱말인가 두 낱말인가에 있다 할 것이외다。이 따위는 이미 떼어 적은 것과 같이 二十, 三十……을 한 낱말로 잡는 것이 옳을 것이외다。그 까닭은 대강 이러합니다。

1. 수물, 설흔과 같은 순 朝鮮말로 된 것이 이미 한 낱말로 되었으며,

2. 英語나 獨語에서도 이 따위를 다 한 낱말로 잡았으며 (但 獨語에서는 特別한 事情에 依하야,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같은 따위조차 한 낱말로 보았음)。

3. 따라 우리의 理解力, 把持力이 二十, 三十, 四百,……을 한 낱말로 보기에 의었으며, 또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理由에서 算數의 한 位의 말을 한 낱말로 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그러한즉, 三千里의 三千을 하나 (한 어떤

씨 봄이 옳습니다。 그것을 들로 떴 것은 忽忙中 筆者의 不注意에서 나온 잘못이 을시다。

(2) 썬씨와 어면씨와의 區別은 어떠한 가?

한, 두, 세, 서, 석, 네, 따위는 입자씨 우 에서 그것을 꾸미는 것으로만 쓰이니, 이것들이 썬씨가 아니요, 어면씨임이 分明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백, 따위와 모든 漢字語 一, 二, 十, 百 따위는 어면씨로도 쓰이고, 썬씨로도 쓰이니, 그境遇를 따라 입자씨 우에 쓰인 것은 어면씨로 보고, 그 스스로가 입자씨로 쓰인 것은 썬씨로 봄이 옳을 것입니다。 곧 같은 씨가 그 쓰임을 따라서 두가지의 씨로 되는 것이외다。 이는 다른 나라말에서도 이와 같이 봄이 通例인 것 같습니다。 들으 신 二, 五, 七十을 썬씨라 하였음은 그름 (誤)이외다。(최현배)

### 옛 시 조

春風 桃李花들아, 고은 양자 자랑 마라。蒼松 綠竹을, 歲寒에 보려므나。 亭亭코 落落한 節을, 고칠 줄이 잊으랴。(金裕器)  
綠楊이 千萬絲들, 가는 春風 매어 두며。 探花 蜂蝶인들, 지는 꽃 어이하리。 아무리 사랑이 중한들 가는 입을 어이더(李元翼)  
頭流山 兩湍水를, 예 듣고 이제 보니。 桃花 든 맑은 물에, 山影조차 잠겼세라。 아 이야 武陵이 어디노, 나는 연가 하노라。(曹植)

### 新刊紹介

### 鷺山 時調集

李殷相氏 著

定價 七十錢 送料 六錢

鷺山 李殷相氏의 十年間 努力의 結晶으로 이 時調集 이 나온 것은 朝鮮語, 朝鮮文學史에 큰 貢獻이 있을 을 確信한다。 發行所 京城 聖志洞 漢城圖書株式會社

### 本社記事

四月 九日 月例會를 열다。 「한글」編輯에 關한 討議와, 綴字 統一案에 對하여 每週 二回(木, 金)씩 討論을 進行하기로 決定하다。  
五月 十四日 月例會를 열다。 李鉉氏의 「綴字法 理論과 實際」에 對한 講演이 있었다。  
東亞日報社 主權의 第二回 夏期 韓語 講習會 後授에 對한 討議가 있었다。  
五月 二十一日 下午 五時에 會員 一同이 탑골僧房에서 園遊會를 열었다。

### 社告

地方에서 支社 혹 分社를 차리기를 願하시는 本은 本社로 물으시든지, 郵票 二錢짜리를 보내시오。

### 投稿歡迎

- 一. 韓글에 關한 研究論文 및 研究資料等。
- 一. 隱名을 쓰실지라도, 本社에까지는 姓名 住所를 밝히 써 주실 일。
- 一. 添刪과 記載 與否는 編輯部의 權限에 있음。
- 一. 原稿는 一切 返還하지 아니함。

### 남은말씀

□본지 창간호는 만천하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 못내 감격하나이다。 앞으로 더욱 사랑하여 주시기를 비나이다。  
□이번 호는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처럼 늦게 나게 되오니, 미안하기 그지 없나이다。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소서。

□다음 호는 우리 한글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신 한헌생(周時經) 스승의 심판회 기신을 기림하기 위하여, 철자특집(綴字特輯)을 내려고 합니다。

昭和七年 六月 七日 印刷  
昭和七年 六月 十日 發行  
한글 第一卷 第二號

定價 { 一部 十五錢  
六個月 八十錢  
一箇年 一圓六十錢

京城府 水標町 四二  
編輯兼 發行人 申 明 均  
京城府 水標町 四二  
印刷者 李 炳 華  
京城府 水標町 四二  
印刷所 新少年社印刷部  
京城府 水標町 四二  
發行所 朝鮮語學會  
電(光)一三九九番  
振京一〇〇四四番

京城府 慶雲洞 九六  
總販賣所 中央印書館  
電(光)一一九三  
振京一二一七八

六月號 出來  
定價 三十錢  
(支社 大募集)

# 東 光

京城鍾路二丁目九一  
發行所 東 光 社  
振替京城四番

한글 運動의 先驅는 오직 이 東光!  
全部 新綴字로 쓴 雜誌는 이 東光!

이번 호에는

- ◇朝鮮 文字의 歷史 的考察 .....金 允 經
- ◇全體主義와 구실主義 .....李 光 洙
- ◇天道教 再分裂의 真相.....美 林 生
- ◇中央日報 紛糾의 裏面.....朴 相 浩
- ◇朝鮮日報 社長 俞鎮泰論.....柳 光 烈
- ◇衡平運動의 理論과 實際.....朱 耀 翰
- ◇經濟學士 崔英淑女士와 印度} .....一 記 者
- ◇青年과 的 戀愛關係의 真相}
- ◇朝鮮 新舊運動의 選手評.....金 泰 浩

- ◆朝鮮 徵兵制度에 對한.....  
諸氏의 意見
  - ◆朝鮮 言論界에 對한.....  
諸氏의 評論
  - ◇賞春 小詩 .....金岸曙
  - ◇論介의 還生 .....金東仁
  - ◇五月의 波濤 .....李揆元
  - ◇放浪兒.....李 薰
- 畫報·實話·趣味等

每月一回  
十日發行

## 實生活

一冊十錢  
一年一圓

本誌는 現代生活의 燈臺, 實際生活의 羅針盤! 朝鮮人의 產業獎勵, 教育振興, 生活改新, 文化向上을 爲하야 盡力하는 朝鮮 唯一의 實力 建設 雜誌。

### ◇支分社 大募集

本誌를 朝鮮各地 坊坊谷谷 家家戶戶에 펼치기 爲하야 支分社 大募集。支分社 되기는 簡單容易, 收入多大。冊價 十錢 附送하면 實生活 一冊과 支分社 規定을 보낸다。

京城府樂園洞三〇〇

發行所 獎 產 社

電(光)一三一九番  
振替京城一〇九五七

六月號

## 新 生

一冊十錢  
一年一圓

—重要目次—

- ◇權力, 實力, 智力.....李 勳 求
- ◇自然과 人生.....金 昶 濟
- ◇幸福과 宗教.....리을博士
- ◇生과 死.....柳 澄 基
- 나의 主義.....諸 名 士
- ◇朝鮮 史話.....全 瑗 根
- 西洋 史話.....兩山學人
- 諸家 讀書論.....諸 氏
- ◇火葬場에서(時調).....가 략
- ◇달 (新詩).....鄭 芝 鎔
- 綠陰·山水.....名士諸氏
- ◇耳公 雜信(感想).....李 股 相
- ◇海雄山雄 (戲曲).....方 仁 根

此外 數十篇의 論文, 文藝等 滿載,

京城鍾路二丁目九一

發行所 新 生 社

振替京城三九八番

# 告 豫 號 次

[內 容]

周時經  
님을記  
念하야

- ◆周時經 先生의 人格과 事業.....한 퇴
- ◆周時經 先生의 著書에 對하야.....최 현 배
- ◆한 힌섬 스승을 생각함(時調).....가 람

## — 各國의 綴字運動 —

綴  
字  
特  
輯

- ◇日本의 綴字 問題.....李 熙 昇
- ◇中國은 表意文字에서 表音文字로.....李 克 魯
- ◇土耳其의 文字革命.....등 실
- ◇歐美의 綴字 改正論.....李 鉀
- ◇조선 글의 變遷.....李 允 宰

## — 한글 綴字의 理論과 實際 —

- ◇訓民正音 贊.....李 殷 相
- ◇한글 綴字의 合理化.....申 明 均
- ◇한글 綴字法 原理.....金 善 琪
- ◇새 바침에 關한 諸問題의 解決과 그 實例의 總覽.....崔 鉉 培
- ◇中間音의 過去와 現在.....金 允 經
- ◇變格活用의 例.....이 윤 재
- ◇조선말의 學術語.....李 萬 珪
- ◇其他 重要 記事.....